기본과제 2018-05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영태(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대구여성가족재단
DAEGU WOMEN & FAMILY FOUNDATION

보고서 인용 표시
정영태(2019).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광역시 출연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모이고 나누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구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입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면서 돌보는 사람의 공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가함

○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자녀돌봄의 어려움,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등 자녀 돌봄을 위한 부담 가중

- 가정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와 돌봄을 대체하기 위한 사교육 증가 및 양육 부담 가중

□ 2004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 이용대상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였음

○ 보육을 중심으로 1~2학년 저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저학년 대상 수요보다 학부모는 아침, 오후, 늦은 저녁 등 보호와 교육의 통합 운영 요구가 나타났음 .

□ '온종일 돌봄교실' 로 확대되면서 늦은 밤 10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프로그램을 교육의 연장선에서 추진함

□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정책" 을 발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이 발표됨.

○ 우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2017년 행안부와 복지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다함께돌봄 사업을 확대 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하였음

□ 최근 초등돌봄의 방향은 저소득·취약 가구 대상, 학교 개별 돌봄에서 마을과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로 확장되었음

□ 대구시는 자녀돌봄과 관련 정책이 민선 7기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온종일 돌봄체제 확대(시장공약사항 관리카드6-4)” 를 추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등돌봄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본 연구는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초등돌봄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초등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서 개별 제공되고 있으며, 돌봄의 대상, 돌봄 유형 등이 서로 상이함

□ 본 연구는 초등학생 돌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의 돌봄에서 벗어나 일반가정의 자녀까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제시함

○ 영유아의 경우 인구대비 80%정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평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15%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수행절차 등을 제시하였음

□ 제2장은 온종일 돌봄선행연구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돌봄서비스와 지역사례를 통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살펴봄

○ 초등돌봄에 대한 주요 정책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 사업분석

○ 2018년부터 정부 주도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산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3장은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
○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체계구축 방안을 기초연구로 초등학생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를 이용하여 수행함

3. 온종일 돌봄 선행연구와 정책

□ 2000년대 전후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음
○ 사회환경의 변화는 자녀가 나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안전을 비롯하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자녀 양육과 돌봄의 공백에 대한 정책 요구로 이어짐

□ 자녀돌봄이 사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2004년 이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정책이 제시되었음
○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방과후교실을 통해 정규과정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공부방을 확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역차원의 돌봄정책을 추진함
○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돌봄 대상을 아동은 물론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함

□ 초등돌봄교실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임
○ 초등돌봄교실은 이용 대상이 1~2학년을 대상으로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순위임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교육·놀이와 활동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1990년대 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개편됨

□ 아이돌봄사업은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임

○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 사업을 계기로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14년 방과후 교실 확대, 2017년 문재인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제시되면서 돌봄을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음

○ 2017년 문재인정부가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확대되었음

□ 온종일 돌봄체계는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임

4. 대구지역 돌봄 현황

□ 대구지역은 8개 구군별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음

○ 중구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초등돌봄교실 9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동구는 지역아동센터 25개소, 초등돌봄교실 31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서구는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초등돌봄교실 17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초등돌봄교실 11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북구는 지역아동센터 44개소, 초등돌봄교실 38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수성구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초등돌봄교실 33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달서구는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초등돌봄교실 54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달성군은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초등돌봄교실 32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개소,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2개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5. 초등자녀를 둔 부모 설문 조사 결과

□ 초등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인지도가 89.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사적 영역은 학습지에 대한 인지정도가 76.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및 그룹과외의 인지도는 46.4%임

□ 2019년 자녀가 이용한 사교육과 관련 태권도/축구/발레 등이 전체의 47.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어 등 외국어 37.2%, 바이올린/피아노 등 음악분야 32.8%, 국·수·과 단과학원 24.1%, 미술/서예 등 미술 18.9%, 개인/그룹과외 13.3%, 논술/독해/독서 11.1%, 종합학원 9.0%의 순임
○ 사교육 이용 평균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하루 평균 이용 학원은 1.84개, 하루 평균 참여시간은 2.27시간, 일주일 이용학원은 2.72개로 조사됨
○ 한달 평균 학원비는 43.46만원이며, 달서구 2.09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1.95개,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은 동구 2.70시간, 초등학교 6학년 2.64시간 등으로 나타남

- 일주일동안 이용하는 학원은 평균 달서구가 3.07개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 2.98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결론

□ 초등돌봄을 지역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연계 돌봄 유형을 구군별로 모델화 할 필요가 있음

○ 구군별로 초등돌봄교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초등자녀를 둔 부모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구군별, 맞춤형초등자녀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구교육청의 지역사회돌봄협의체 이외 시·구·군의 돌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사회돌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수요자-공급자-정책전달자-수혜자 간의 끊임없는 협력과 소통이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현재 돌봄 조직과 달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인력 수준에 대한 제고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타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중간조직지원 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조직 필요성 등에 대한 지역 내 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Ⅱ. 온종일 돌봄의 정의 ····· 9

1. 온종일 돌봄체계 개요 ····· 11
2. 초등학생 대상 돌봄 정책 ····· 15
3. 타지역 초등돌봄 서비스 ····· 30
4.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 34
5. 대구지역 초등돌봄현황 ····· 44
6. 소결 ····· 55

Ⅲ.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 설문조사 결과 ····· 57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실태조사 개요 ····· 59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돌봄 실태조사 결과 ····· 61
3. 돌봄 관계자 FGI 결과 ····· 80
4. 소결 ····· 89

Ⅳ. 결론 ····· 91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93
2. 대구지역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95

■ 참고문헌 ····· 97

■ 부 록 ····· 99

표 목 차

〈표 Ⅱ-1〉 경력단절여성의 사유 ····· 15
〈표 Ⅱ-2〉 오후돌봄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예시 ····· 19
〈표 Ⅱ-3〉 3~6학년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예시) ····· 19
〈표 Ⅱ-4〉 저녁돌봄교실 운영(예시) ····· 20
〈표 Ⅱ-5〉 방학중 돌봄교실운영(예시) ····· 20
〈표 Ⅱ-6〉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차이 ····· 21
〈표 Ⅱ-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 25
〈표 Ⅱ-8〉 아이돌보미 시간제 서비스 ····· 29
〈표 Ⅱ-9〉 2018년 서울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현황 ····· 32
〈표 Ⅱ-10〉 서울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 32
〈표 Ⅱ-11〉 온동일 돌봄 선도사업 ····· 35
〈표 Ⅱ-12〉 구로구 돌봄 생태계 구축 ····· 37
〈표 Ⅱ-13〉 대구지역 초등학교수와 학생수(2018) ····· 52
〈표 Ⅱ-14〉 대구지역 초등학생 연령별・학년별(2018) ····· 52
〈표 Ⅱ-15〉 2018 대구지역 초등돌봄 참여 현황 ····· 53
〈표 Ⅱ-16〉 2018 대구지역 가구유형별 초등돌봄 참여 현황 ····· 53
〈표 Ⅱ-17〉 2018 대구지역 귀가시간별 초등돌봄 이용아동 ····· 54
〈표 Ⅱ-18〉 2018 대구지역 돌봄운영 방식별 돌봄 이용현황 ····· 54
〈표 Ⅲ-1〉 조사문항 ····· 59
〈표 Ⅲ-2〉 응답자 특성 ····· 61
〈표 Ⅲ-3〉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와 향후 이용 의향 ····· 64
〈표 Ⅲ-4〉 사적서비스 인지 정도와 향후 이용 의향 ····· 66
〈표 Ⅲ-5〉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 67
〈표 Ⅲ-6〉 사적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71

〈표 Ⅲ-7〉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 71
〈표 Ⅲ-8〉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 76
〈표 Ⅲ-9〉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 업무담당자 FGI ····· 81
〈표 Ⅲ-10〉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FGI ····· 84
〈표 Ⅲ-11〉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FGI ····· 8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기존돌봄과 온종일 돌봄체계 비교 ····· 13
[그림 Ⅱ-2] 온종일 돌봄체계 비전 및 추진전략 ····· 14
[그림 Ⅱ-3] 초등돌봄교실 운영형태 ····· 17
[그림 Ⅱ-4] 지역아동센터 전달체계 ····· 22
[그림 Ⅱ-5] 아이돌보미사이트 ····· 27
[그림 Ⅱ-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도 ····· 28
[그림 Ⅱ-7]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 31
[그림 Ⅱ-8] 제주도 수눌음 공동체 운영현황 ····· 34
[그림 Ⅱ-9] 노원구 돌봄협의회 구청 체계 ····· 38
[그림 Ⅱ-10] 성동구 초등돌봄 홈페이지 ····· 40
[그림 Ⅱ-11] 중구 초등돌봄기관 ····· 44
[그림 Ⅱ-12] 동구 초등돌봄기관 ····· 45
[그림 Ⅱ-13] 서구 초등돌봄기관 ····· 46
[그림 Ⅱ-14] 남구 초등돌봄기관 ····· 47
[그림 Ⅱ-15] 북구 초등돌봄기관 ····· 48
[그림 Ⅱ-16] 수성구 초등돌봄기관 ····· 49
[그림 Ⅱ-17] 달서구 초등돌봄기관 ····· 50
[그림 Ⅱ-18] 달성군 초등돌봄기관 ····· 51
[그림 Ⅲ-1]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60
[그림 Ⅲ-2] 방과후 돌봄 공적·사적 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 63
[그림 Ⅲ-3] 방과후 돌봄 공적·사적 돌봄 서비스 이용정도 ····· 63
[그림 Ⅲ-4] 향후 방과후 돌봄 공적·사적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 64
[그림 Ⅲ-5] 지역아동센터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이용 의향 ··· 65
[그림 Ⅲ-6] 공적 돌봄서비스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 67

[그림 Ⅲ-7] 공적 돌봄 기관 서비스 고려 사항 ····· 68
[그림 Ⅲ-8] 방과후교실 이용 프로그램 ····· 69
[그림 Ⅲ-9] 공적서비스에 보내지 않는 이유 ····· 69
[그림 Ⅲ-10]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 70
[그림 Ⅲ-11] 2년 이내 일을 그만둘 의향 ····· 72
[그림 Ⅲ-12] 정규 수업 이후 자녀를 돌보는 주된 양육자 ····· 72
[그림 Ⅲ-13] 돌봄 공백에 대한 인지 여부 ····· 73
[그림 Ⅲ-14] 돌봄 공백 체감시간 ····· 74
[그림 Ⅲ-15]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 ····· 75
[그림 Ⅲ-16]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 75
[그림 Ⅲ-17] 향후 희망 프로그램 ····· 77
[그림 Ⅲ-18] 자녀 돌봄 정보 습득 경로 ····· 78
[그림 Ⅲ-19] 자녀 돌봄 정보 수준의 만족도 ····· 78
[그림 Ⅲ-20] 돌봄코디네이터 이용 의향 ····· 79
[그림 Ⅲ-21]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 80
[그림 Ⅲ-22] 스쿨쉐어링앱 ····· 8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면서 방과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돌보는 사람의 공백은 방과후 방치되는 학생의 증가로, 나아가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사교육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사교육비의 증가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교육격차의 심화와 함께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써 저출생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 이용대상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 초등보육교실인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 저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아침, 오후, 늦은 저녁까지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제공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이명박정부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교실'로 확대하면서 늦은 밤 10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프로그램을 교육정책의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교 대상 돌봄의 공백과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는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모델을 구축하고자, 전국적으로 돌봄 모델을 공모하여 9개 자방자치치단체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7년 행안부와 복지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다함께돌봄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관련「아

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위주의 돌봄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돌봄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전 6시에서 8시, 방과후 오후 시간, 부모 외출 및 질병 기간 등 돌봄이 필요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 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 역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활용이 가능한 교실 또는 지역내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력은 교육기부, 자원봉사,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돌봄 지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은 저소득·취약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초등돌봄의 연장선에서 학교 단위 개별 돌봄에서 마을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돌봄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 중심 초등돌봄은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학교중심 돌봄은 오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교실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대구시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난 민선 7기 공약과제로 온종일 돌봄이 제시되었으며, “온종일 돌봄체제 확대(시장공약사항 관리카드6-4)” 가 민선 7기 정책 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초등돌봄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다양한 영유아 돌봄 지원에 비하여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에 대한 돌봄이 공적인 영역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공적서비스 이용이 전체 영유아 인구의 70% 수준으로 높은 반면, 초등은 공적돌봄 서비스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초등돌봄 욕구를 토대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재 타 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례를 통해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연계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연구 내용은 분절되어 있는 초등중심의 돌봄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초등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대상별 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다. 돌봄 정책에 대한 개념과 서비스를 토대로 지역 단위에서 수요자 요구를 수용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를 포괄하여 분석하지 않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 요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 영유아의 경우 인구대비 80%정도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15%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지역 차원의 온종일돌봄 체계구축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내용을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수행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온종일 돌봄선행연구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돌봄서비스와 지역사례를 통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살펴보았다. 초등돌봄에 대한 주요 정책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 사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 정책 분석에 있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히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3학년)으로 이용함에 따라 본 연구애서는 초등자녀 돌봄 정책에서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부터 정부 주도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체계구축 방안을 기초연구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수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의견 수렴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으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자녀 돌봄과 관련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방과후돌봄, 방과후돌봄서비스,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라 정책이 제시하는 바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혼용하여 서술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연구 수행을 위하여 온종일돌봄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과 관련 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돌봄 관련 통계를 통해 돌봄 필요성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구지역의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온종일 돌봄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방과후 활동과 사교육 정도, 희망 돌봄 서비스 등을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구군별 아동인구를 토대로 표본을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

초등돌봄 관계자 및 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초등자녀의 방과후 활동과 희망 돌봄 유형을 구조화된 설문을 통

해 조사하였으나, 실질적인 돌봄의 공백에 대한 부분은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청 초등돌봄 관계자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검토해야할 부분을 살펴보았다.

2) 연구수행 절차

구분	내용	비고
계획설계	연구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추진 방법 및 계획 수립 **연구 방향 설정**
자료분석	선행연구 검토 정책 분석	초등돌봄 관련 연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침 서울 및 경기도 초등돌봄 사례 검토 **온종일 돌봄 현황 검토**
설문조사 관계자FGI	초등돌봄 수요 조사 초등돌봄 공급 조사	초등돌봄 관련 대구 현황 분석 **온종일 돌봄 욕구 분석**
정책방안 도출	대구지역 초등돌봄체계 구축방안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안) 제시 (연구결과 도출)**

II. 온종일 돌봄의 정의

1. 온종일 돌봄체계 개요 11
2. 초등학생 대상 돌봄 정책 15
3. 타지역 초등돌봄 서비스 30
4.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34
5. 대구지역 초등돌봄서비스 44
6. 소결 55

1. 온종일 돌봄체계 개요

2000년대 전후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아동 청소년은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나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방과후 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제시되면서 2004년 사교육비 경감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와 방과후교실이 운영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 대한 돌봄을 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은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기존 공부방을 2004년 법제화 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였다.

초등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청의 초등돌봄 교실로 부처별 운영되어 온 것이다. 부처별로 사업이 개별 운영되면서 설치 목적과 지원 대상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 및 운영평가를 체계화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방과후 교실 확대, 2017년 문재인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제시되면서 돌봄을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초등돌봄에 대한 취약계층 중심의 낙인에서 벗어나 일반 아동을 포괄하는 돌봄으로 저학년은 물론 고학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문재인정부가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확대되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하여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을 예고하였다(국정과제 48-3,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What, Why, When, Where, How 등 6가지가 제시되었다.

우선, [WHAT]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운영되는 교과, 특기적성, 돌봄 등 학교 안·밖 방과후돌봄체계로 제시하아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및 흥미・적성・진로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Why]는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종합적 방과후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Who]는 운영주체(학교-교육청, 마을-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등이 운영 주체를 자율에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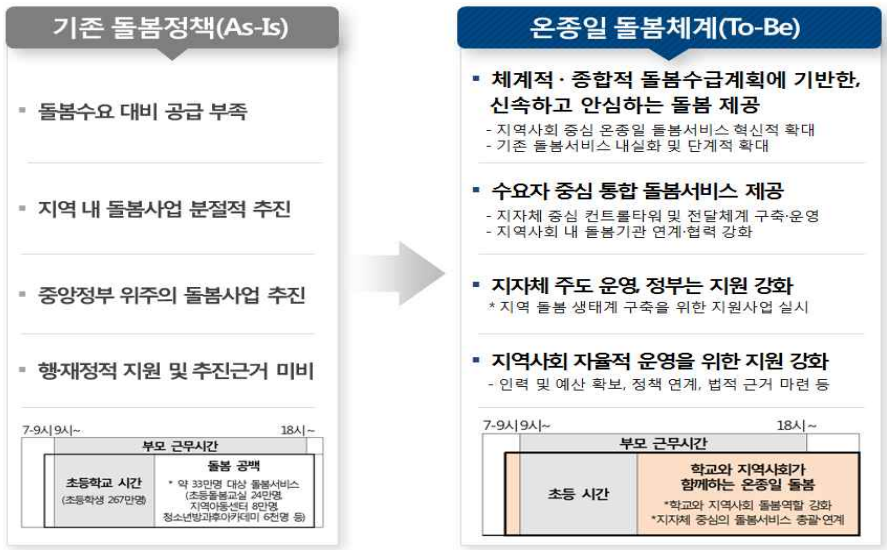
네변째, [When]은 방과후, 방학중 등 언제나 온종일 돌봄이 제공되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는 [Where]로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용하는 아동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How는 자치단체 중심의 돌봄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를 통해 돌봄수급 및 돌봄 기관별 역할 조정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보았다.

6가지 원칙이 제시된 배경은 기존 돌봄정책이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이 부족하고, 분절적 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추진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온종일 돌봄체계는 체계적・종합적 돌봄수급계획에 기반 하여 신속하고 안심하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단계별 확대 방안을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부족과 서비스간 연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내 돌봄기관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돌봄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지역사회가 자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교육부. 2017.12.37 보도자료

[그림 Ⅱ-1] 기존돌봄과 온종일 돌봄체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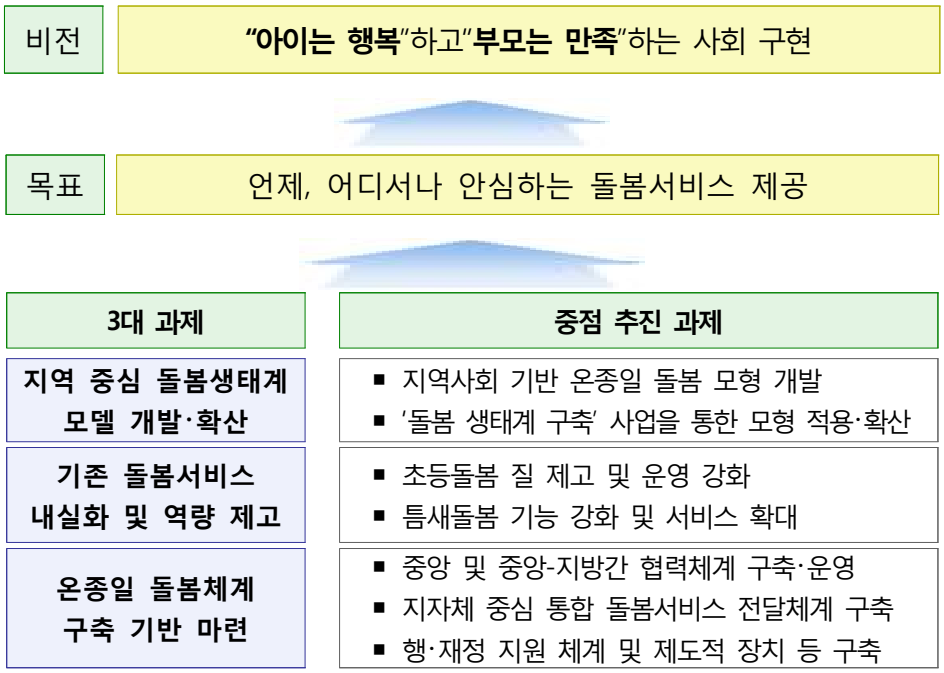
이처럼 정부 주도로 시작된 온종일 돌봄체계 사업은 2017년 9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을 제시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주요 사업 방향이 제시되었다.

우선,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돌봄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간 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을 개발·보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실화와 역량제고가 제시되었다. 초등돌봄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내실화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취약가정의 자녀에게 가정에서와 같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화 제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돌봄 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 지역돌봄기관 기준 역시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제고와 돌봄기관이 확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인 긴급·일시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율적인 틈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으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제시되었다.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자치단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효과적인 돌봄체계 구축, 학교시설 개방 등과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교육부. 2017.12.37 보도자료

[그림 Ⅱ-2] 온종일 돌봄체계 비전 및 추진전략

2. 초등학생 대상 돌봄 정책

가. 초등돌봄교실

1) 초등돌봄교실 개요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다.

<표 Ⅱ-1> 경력단절여성의 사유

구분 / 경력단절 사유	2016	2017	2018
결혼	668	633	634
임신・출산	505	454	445
육아	578	586	619
자녀교육	81	77	71
가족돌봄	93	82	78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H07S&conn_path=I3

여성의 경력단절의 사유를 보면 전반적으로 혼인이 감소하면서 임신과 출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육아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육과 관련 돌봄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기중 방과후 시간부터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자녀의 돌봄공백이 생기는 것과 달리 방학중 돌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를 연계한 촘촘한 돌봄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방과후 교실' 정책 발표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초등보육교실로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였다.

그 후 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운영이 확대 되면서 ‘종일돌봄교실’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09년 300개교까지 돌봄교실이 확대되었다. 2010년 ‘초등보육교실’을 전면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200개로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었다.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시범운영되면서 아침(06:30~09:00), 오후(방과후~17:00), 저녁(17:00~22:00) 등 시간대별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2013년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모델학교 시범운영이 78개교에서 이루어지고, 방과후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 지원서비스가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성남시, 전북 진안군, 전남 나주시)에서 추진되었다. 기존 고학년 중심 돌봄교실과 달리 1~2학년 대상 돌봄교실을 2014년 10,966개 교실로 확대하고, 2학기부터 프로그램 관련 재료비, 저녁돌봄안전관리 시스템, 보조인력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대상별 만족도가 높은 돌봄교실로 1~2학년은 돌봄 중심의 돌봄교실이 3학년 이상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이원화되어 초등돌봄이 이루어졌다.

초등돌봄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포함하면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되었다. 중앙-지방의 협업을 위한 공동추진단 구성・운영과 함께 2018년 4월 2022년까지 총 3,500실의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발표되었다.

2) 이용대상과 운영

초등돌봄교실은 이용 대상이 1~2학년을 대상이다.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순위이다. 저학년 중심의 돌봄교실 이외 방과후학교 연계형은 3학년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3학년에서 6학년 자

녀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며,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방과후교실은 초등 1~2학년 중심인 경우 대상에 따라 귀가안전까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19시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기존 학교 교실을 신·증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돌봄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될 경우 돌봄 전용공간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끼리 협업을 통해 지역돌봄센터를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학교 건축물 증축을 통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일반·특별교실의 리모델링을 통한 돌봄 전·겸용 교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7

[그림 Ⅱ-3] 초등돌봄교실 운영형태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학습위주의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놀이와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이 가능하고, 정서적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돌봄에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돌봄은 학교가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오후·저녁 돌봄은 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17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초등돌봄 관련 별도의 규정이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매년 제작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시·도의 상황에 맞게 길라잡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 돌봄봉사인력, 단체활동 지도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관리, 학생 보호, 교실관리, 관련 보고,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교육청이 채용절차에 의거 공개채용을 통해 배치된다.

돌봄봉사인력은 돌봄교실 운영 및 지원 관련 봉사인력으로 대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기부자 등이 해당된다. 각식 및 급식준비 및 사후처리 지원·보조, 생활지도 지원·보조, 안전관리 지원·보조, 야간순찰 지원·보조, 귀가 지원·보조, 필요한 경우 학생 개인활동 보조 및 단체활동 지원·보조, 그 밖에 돌봄교실에 필요한 업무·지원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체활동 지도강사는 돌봄교실의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로 위탁강사 부분에 해당되며 계약과 평가 등을 통해 강사로 활동 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재학생의 경우 전년도 11월에서 12월초에 걸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입생의 경우 취학통지서 배부시 수요조사서를 함께 배부하고 예비소집일에 수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 참여 희망학생수를 파악하고, 교실 수, 시간대별 참여학생 확인 등을 통해 돌봄교실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용교실과 겸용교실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귀가시간대를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다.

3)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 생활지도, 학생 안전 지도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후돌봄은 초기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은 개인활동과 단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체활동의 경우 매일 1개 이상 주 5회 이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Ⅱ-2> 오후돌봄 프로그램 편성・운영(예시)

요일 / 구분	월	화	수	목	금
13:00~13:40	정규수업	정규수업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이용**	정규수업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참여**
13:40~13:50	이동 및 쉬는 시간				
13:50~14:30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참여**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참여**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참여**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참여**	**돌봄교실 유료 방과후참여**
14:30~14:40	이동 및 휴식				
14:40~15:20	개인 활동(간식)				
15:20~15:30	이동 및 휴식				
15:30~16:10	단체활동 프로그램	단체활동 프로그램	단체활동 프로그램	단체활동 프로그램	단체활동 프로그램
16:10~16:20	이동 및 휴식				
16:20~17:00	개인활동 숙제 등	개인활동 숙제 등	개인활동 숙제 등	개인활동 숙제 등	개인활동 숙제 등
17:00~17:10	귀가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17시까지 돌봄을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일반교실, 도서관, 특별실)에서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17시부터 자율귀가가 가능하며, 관리교사에게 귀가를 알린 후 귀가를 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저녁돌봄교실이 있다.

<표 Ⅱ-3> 3~6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예시)

요일 / 구분	월	화	수	목	금
14:00~15:00	입실 및 개인 활동				
15:00~16:00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및 개인활동(숙제, 독서, 놀이 등)**				
16:00~16:50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및 개인활동(숙제, 독서, 놀이 등)**				
16:50~17:00	정리정돈, 퇴실 확인, 귀가				

오후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20인 이내 단일 학급을 편성할 수 있으며, 5인 이하일 경우 지역내 돌봄기관과 연계 할 수 있다.

〈표 Ⅱ-4〉 저녁돌봄교실 운영(예시)

요일 / 구분	월	화	수	목	금
17:00～17:40	입실 및 개인 활동				
17:40～19:00	**저녁식사와 휴식**				
19:00～20:40	**숙제 및 개인활동**				
20:40～22:00	개인 활동 및 귀가				

네 번째는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학년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로 오후돌봄 전용・겸용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유관기관 등을 통해 자유놀이 및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표 Ⅱ-5〉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예시)

요일 / 구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출석 확인 및 개인 활동				
10:00～12:0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 미참여 학생의 경우 개인 활동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오전활동 참여 학생 귀가				
13:00～14:00	개인 활동 및 휴식				
14:00～15:00	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1)				
15:00～16:00	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2)				
16:00～16:50	개인 활동 및 귀가지도				
16:50～17:00	귀가(차량 운행시 관리자 탑승 등 안전귀가 지원)				

마지막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지도운영으로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기본생활습관, 학교 폭력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또한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돌봄교실을 운영 관련 안전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귀가 및 감염병,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우러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이외의 교육 및 돌봄프로그램”(2014년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이다. 초등돌봄프로그램은 주중, 토요휴업일, 방학 중에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방과후학교로 포함하여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은 대상, 시간, 비용 등 몇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표 Ⅱ-6〉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차이

구분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운영시간	방과후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돔
이용대상	희망하는 모든 학생	오후돌봄: 희망하는 초등학생 저녁돌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및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학교가 일정한 프로그램 제공 놀이 및 단체활동, 개인활동 (숙제 및 독서 등)
참여시간	학생이 자유선택 방과후에서부터 최대 6시까지	아침돌봄: 06:30 ~ 09:00 오후돌봄: 06:30 ~ 09:00 아침돌봄: 06:30 ~ 09:00
비용	수익자 부담	무료(단, 간식, 급식비는 수요자부담)

나.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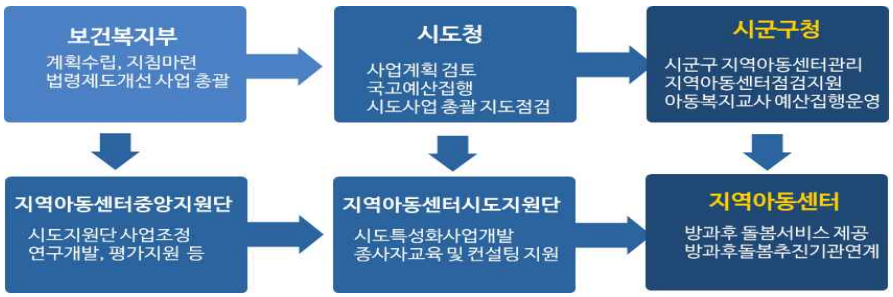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교육・놀이와 활동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

법」제50조~제52조, 제54조에서 7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로 24개월 이상 운영된 시설 가운데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되었다. 당시 895개소 23,34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원 아동 역시 43,479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2006년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과 연계한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었다. 2008년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범평가가 실시되었으며, 2009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3,224개소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부터 제3기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마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시도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의 추진체계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그림 Ⅱ-4] 지역아동센터 전달체계

2) 이용 대상과 운영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크게 돌봄취약아동, 일반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돌봄취약아동은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일반아동은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으로 동시 일반아동과 가구특성기준의 아동이 함께 이용할 경우 후순위에 해당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정원의 80% 이상이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이 2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40%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3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선정하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한함),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확인서(조손가족인 경우 한함),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이다.

가구특성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별표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동법 제50조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동,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조손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의 아동, 3명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맞벌이가정의 아동 등이 가구 특성에 해당된다.

연령특성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대상이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해당연령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자매 모두가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 특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그 밖에 돌봄 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되지만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부모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 보호자의 중증만성지환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실직 등으로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특례를 통해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주5일을 운영하며,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19시에 문을 닫는다.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운영이나, 야간보호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대부분 매식의 형태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급·간식이 제공된다.

초등돌봄은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이 제공되며, 방과후학교 연계 등 수익자의 자부담이 있는 반면 70%가까이 민간이 운영주체로써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태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규모에 따라 최대 2명의 생활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크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다.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되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표 Ⅱ-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득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환 등 견학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 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지역사회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 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 관리 등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자료: 2019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안내.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시간 또는 보호자와 약속한 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출결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필서명이나 출석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아동에 대한 이용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이나 타 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지 확인하고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다. 아이돌보미사업

1) 아이돌봄사업 개요

아이돌봄사업은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궁극적은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 사업을 계기로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9년 전국 단위로 사업이 확대 되면서 기존 장애아 양육지원사업과 통합운영에서 분리되었으며,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신규 실시되었다.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의 제정으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동의 집에서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중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3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과 관련 근거가 신설되면서, 취약계층 자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을 중위소득 150%로 상향하고,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시간을 기존 60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영아 및 방과후 아동에 대하여 개별 가정의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취업부모의 경우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에 대한 '일시보호', '긴급보호'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있어 부모는 양육부담의 경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연계가 가능한 돌봄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아이돌봄과 관련된 제도는 법령, 행정규칙, 지침이 있다. 법령은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이다. 행정규칙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이 있다. 지침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지침」이 있다.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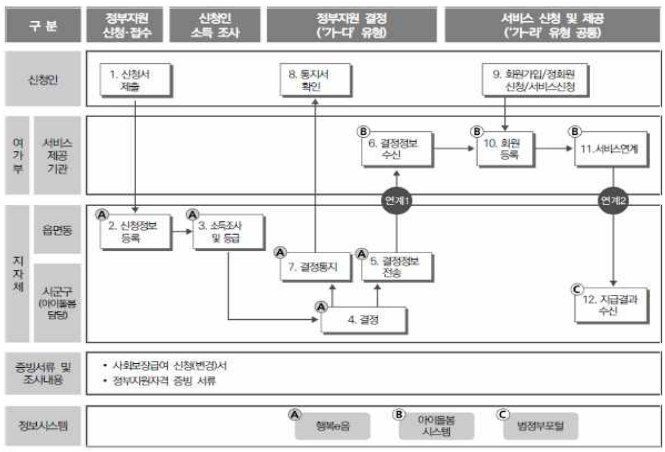
[그림 Ⅱ-5] 아이돌보미사이트

제공기관은 2018년 12월말 기준 222개소로 이 가운데 건가·다가 통합센터 13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개소, 여성단체 여성인력 10개소, 지자체 직영 10개소, 사회복지관 4개소, 자활센터 4개소, YWCA/YMCA 3개소, 산학협력단 2개소, 협동조합 2개소, 사회복지법인 등 13개소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이용 대상과 운영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이다.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1:1로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야간·공휴일·새벽 등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시간을 다 소진한 경우 추가 시간제한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가정은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지원율이 적용된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가운데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는 '가~다' 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 형으로 구분된다.



자료: 2019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그림 Ⅱ-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도

시간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형서비스와 종합형서비스가 있으며, 기관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과 제공 내용이 다르다

<표 Ⅱ-8> 아이돌보미 시간제 서비스

구분	일반형	종합형
돌봄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정부미지원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 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전액 자부담)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정부미지원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 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전액 자부담)
이용 대상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이용 시간	- 1회2시간이상, 추가 최소30분 단위 - 연 720시간 정부 제공 * 정부시간 소진시 전액 본인부담	- 1회2시간이상, 추가 최소30분 단위 - 연 720시간 정부 제공 * 정부시간 소진시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이돌봄과 무관한 가사활동, 조리 통한 식사불가) - 돌봄 대상 아동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전달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이돌봄과 무관한 가사활동, 조리 통한 식사불가) - 돌봄 대상 아동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전달
	-	- 아동 관련 세탁기돌리기, 정리, 아동 돌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하기,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 금액	**- 시간당 9,650원** * 단 야간 10시 오전 6시,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 - 근로자의 날 등 기본요금의 50% (4,825원)증액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함께돌볼 경우 아동별 요금 총액의 25%(2명), 33.3%(3명) - 소득기준: 가나다라형 출생연도: A, B형	**- 시간당 12,550원** * 단 야간 10시 오전 6시,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 - 근로자의 날 등 기본요금의 50% (6,275원)증액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함께돌볼 경우 아동별 요금 총액의 25%(2명), 33.3%(3명) - 소득기준: 가나다라형 출생연도: A, B형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당 9,65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1개월 이용 제한 * 면책금(취소수수료 2배)을 부담할 경우 서비스 이용 개월 제한 면제	-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당 9,65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1개월 이용 제한 * 면책금(취소수수료 2배)을 부담할 경우 서비스 이용 개월 제한 면제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으로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에서 만 0세부터 12세 아동을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을 신청하고, 추가시간은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관 내 설치된 돌봄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서비스 형식이다.

기관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 연령이 만 0세에서 2세 이하는 3명당 1명의 돌보미를 배치하게 되며, 만 3세 이상 12세 이하는 5명당 1명을 배치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16,500원으로 야간 또는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기본요금의 100%(16,500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법적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받고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이용가정에 구두, 메모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신청과 긴급신청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580원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면접 등을 거쳐 양성교육(8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아이돌보미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와 관련 매년 보수교육(16시간)이 필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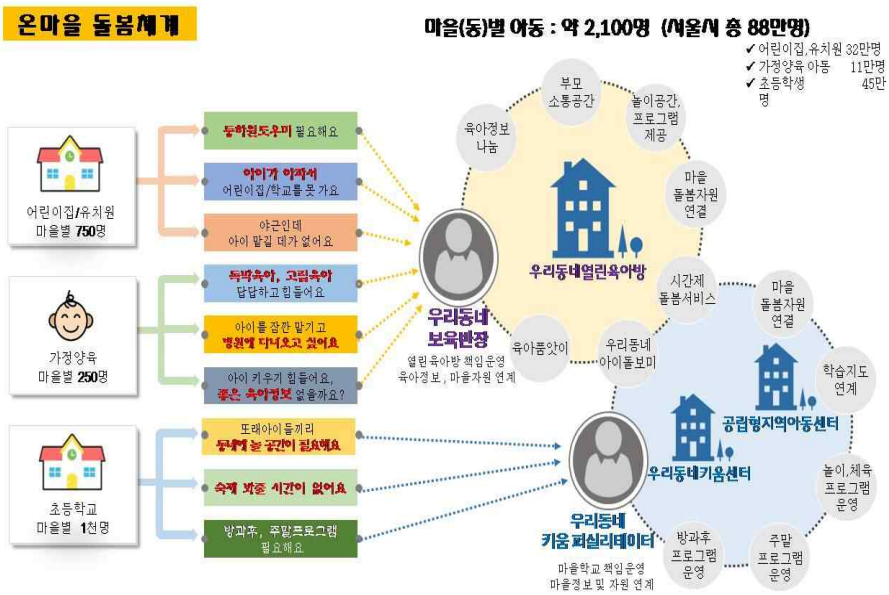
3. 타지역 초등돌봄 서비스

가. 서울시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다함께 돌봄사업을 서울형으로 확대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키움센터는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서비스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림 Ⅱ-7] 서울특별시(2018.03).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재인용

키움센터는 신규 돌봄 기관의 설치가 아닌 기존 돌봄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내 기관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이 이용을 위한 등록을 하고,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선착순으로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다.

〈표 Ⅱ-9〉 2018년 서울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현황

구분	이용대상	정원	운영시간	이용료	프로그램
시범 A	초등전학년	35명	평일 10:00~19:00 방학 10:00~19:00	- 통합돌봄 : 10만원 - 여가돌봄 : 3만원	- 통합돌봄 : 돌봄, 학습시도, 문화체험, 예체능 교육 등 - 여가돌봄 : 독서,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 등
시범 B	유아(6~7세) 초등전학년	45명	평일 10:00~19:00 토요일10:00~17:00 방학 10:00~19:00	- 학기중: 무료 - 방학 : 월6만원(식비)	돌봄, 간식제공 체육, 놀이, 미술, 음악 등 선택
시범 C	초등전학년	25명	평일 10:00~19:00 방학 08:30~19:00	- 종일제 : 10만원 - 시간제 1일 : 1만원	생활·숙제지도, 급·간식제공 자치회의. 동아리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범 D	초등전학년	28명	평일 10:30~19:30 방학 10:30~18:00	무료	생활지도, 놀이지도, 숙제지도, 간식지도

서울시는 최근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운영방향과 설치 등 기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운영매뉴얼을 제시하였다. 키움센터는 기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의 강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돌봄제공기관으로 관련 매뉴얼 은 해당 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졌다.

〈표 Ⅱ-10〉 서울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1.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와 기본요소 1) 키움센터의 개념 2) 사업유형과 내용 3)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설치
2. 키움센터 운영 1)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세부 운영
3.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규정 2) 운영위원회 3) 위탁운영 관련 4) 재정 5) 지역사회 연계
4. 키움센터 시설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원칙 2) 보험가입 3) 안전교육 4) 안전환경조성 및 비상경계 체계 구축 5) 시설안전점검
5. 키움센터 행정 1) 인사관리 2) 직원관리

자료: 온종일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개발 연구

온종일돌봄을 위한 키움센터는 보육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이상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뉴얼(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유관기관의 서비스가 키움센터로 통합된 것이다.

나. 제주도 : “수눌음육아나눔터”와 ‘수눌음돌봄공동체’

제주도의 수눌음육아나눔터와 수눌음돌봄공동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모가 참여하는 돌봄사업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제주도의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핵심과제로 채택되어 2016년 11월 제1호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설치되었다.

“수눌음”은 제주어로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돕는 제주 풍습을 말한다. 내륙지방의 ‘두레’, ‘계’, ‘품앗이’와 유사하다. 수눌음 정신을 육아에 접목시킴으로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을단위의 공동체가치를 돌봄모델로 제시하였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2019년 6월말 기준 29개소, 수눌음돌봄공동체 62개 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는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우선적으로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엄마에게는 활동공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29개소 가운데 3개소는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으로 「수눌음육아 모다들엉 돌봄」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구성된 5가족 이상의 부모자조모임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0~13세 이하 자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표 3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000원으로 강사료, 재료비, 간식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그림 Ⅱ-8] 제주도 수눌음공동체 운영 현황

지역네트워킹 공간으로 수눌음공동체는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4.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2018년 6월 정부는 온종일 돌봄 사업과 관련 3년간 80억원이 지원되는 9개 자치단체를 선정 발표 하였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65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5억원으로 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이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모델화가 가능한 자치단체가 우선 선정되었다.

서울 4개 자치단체, 대전 1개 자치단체, 경기 2개 자치단체, 충남 전남 각각 1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도시형A, 도시형B, 도농복합형 등 제시된 모델을 토대로 선정되었다.

〈표 Ⅱ-11〉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서울	구로구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 (지역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방과 후 돌봄 수요 높으나 돌봄 공급기관 부족 - (사업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지원체계 구축·운영
	노원구	**아동 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休 센터" 조성** - (지역여건)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봄 확충 필요 - (사업내용)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휴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 운영
	성동구	**온 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 (지역여건) 초등돌봄 대상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1.1%), 청계천·서울숲 등 자연자원 활용 활발 - (사업내용)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주민 센터, 종교시설, 아파트, 교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
	성북구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 (지역여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 (사업내용)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 구축 * 울타리형(방과 후 ~ 17시), 둥지형(17 ~ 21시)
대전	서구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들, 서구 C.C.C (Children Care Center) 구축 사업** - (지역여건)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권역 존재, 돌봄의 질적 향상 필요 -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서관) 유휴공간 활용 * 3개소 시범 운영 후 → 23개 행정동 전역으로 확산
경기	시흥시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 (지역여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맞춤형 돌봄 공급 필요 * 북부: 중노년층↑, 중부: 아동인구↑, 남부: 외국인·청년↑, 출생률↑ -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내 인력(마을강사, 학교강사 등 250여 명) 활용, 자체 개발한 돌봄 모형(8개)을 통한 서비스 확대
	오산시	**오산형 돌봄 "함께자람"** - (지역여건) 시민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 도시곳곳 어디든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콤팩트 도시 - (사업내용) 온라인 포털 추가하여 지역사회 풍부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통합지원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충남	홍성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 (지역여건)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농산어촌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 - (사업내용) 읍 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 돌봄 지원
전남	광양시	**“해아 돌봄 센터” 운영** - (지역여건) 도농복합도시(읍 1, 면 6, 동 5)이며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젊음 -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 운영 * 돌봄 취약지역(읍면)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시범모델을 위하여 설치비 50백만원, 인건비 49백만원(국비 매칭 서울 30%, 지방 50%)을 지원하며,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과 공간이 분리 될 수 있도록 공간과 동선에 대한 분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성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다함께 행복한 온(溫)돌봄공동체 만들기

서울 구로구는 도시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를 제시하였다. 구로구는 높은 교육수준과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였다. 18,800여명의 초등학생 가운데 8% 수준인 1,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초등돌봄 교실과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구로구는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초등학교 안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선결조건인 돌봄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봄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을 중심의 돌봄공간을 조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을 단위의 활용 공간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작은도서관이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 것이다.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거점형 온종일 돌봄센터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Ⅱ-12> 구로구 돌봄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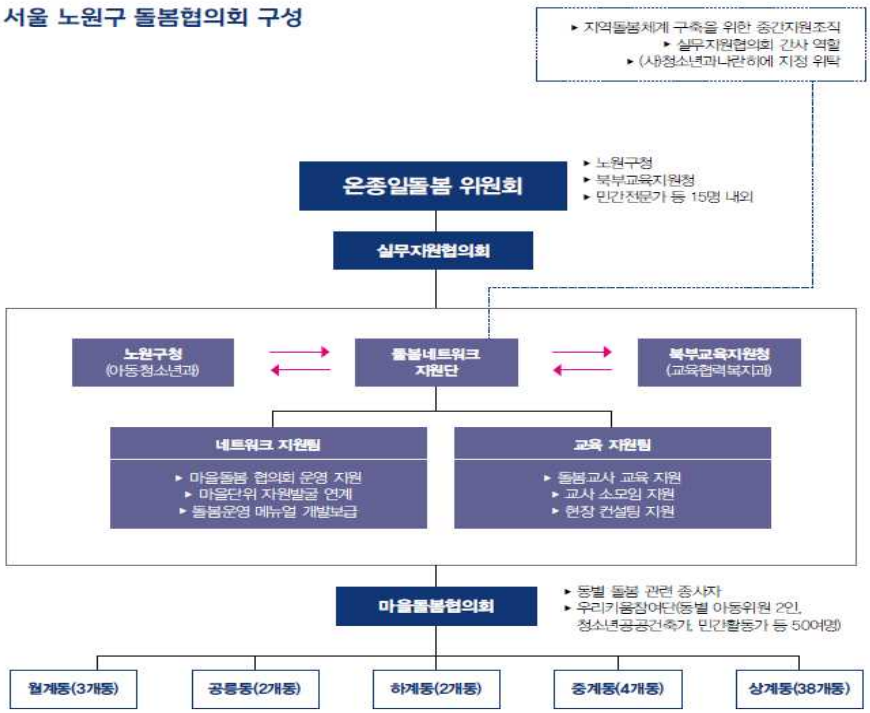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의 단위를 아동과 아동의 원가족에 주목하였다. 구로구 내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는 점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주말돌봄서비스를 특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아동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休센터 조성

노원구는 구 전체 인구 가운데 아동인구의 비율이 18%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번째로 높다. 기존 아동돌봄서비스는 가구별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이루어졌다.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는 보호, 급식,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복지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원구는 행정 위주의 돌봄서비스가 민간 자원과의 연계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을과 구청, 돌봄자원간 연계를 위한 중간조직의 활용을 돌봄사업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기존 노원구 자생단체인 (사)청소년과 나란히가 '노원구 돌봄네트워크지원단'으로 노원구 돌봄컨트롤 타워로 선정하였다. 돌봄네트워크지원단은 노원구 내

103개 돌봄공간과 돌봄전담사, 민간 돌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하나의 돌봄생태계안에 통합시켰다.



[그림 Ⅱ-9] 노원구 돌봄협의회 구성 체계

노원구 차원의 돌봄공간으로 기존의 작은도서관, 공공복합시설, 마을커뮤니티실, 경로당, 아파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공간은 이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와 소통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었다.

그 결과 1,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돌봄센터가 설치되었다. 시범적으로 초등저학년은 상대적으로 잔병치레가 많기 때문에 일시 돌봄이나 병원치료 동행 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것을 반영 병원치료 동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기존 아이돌봄사업의 긴급돌봄

또는 병원 동행과 동일한 사업이다.

또한 아동들이 休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30분 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6개의 休센터는 중복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기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돌봄인력을 행정안전부의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청년을 교육하고, 인력이 부족한 돌봄센터에 배치함으로써, 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환경을 개선하였다. 반면 청년에게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강화를 통한 돌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인 돌봄인력수급과 연계 등의 노원형 돌봄 일자리생태계가 구축되었다.

3) 온 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성동구는 지역내 초등학생이 12,493명으로 전체아동(0～18세)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유아 돌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 등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성동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296호 2018.11.12.)’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지원과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청 차원의 기존 돌봄협의체를 구청차원에서 ‘온 마을 아이돌봄실무협의회’로 구성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성동형 초등돌봄센터,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9개 초등돌봄기관이 함께 초등돌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으로 실무자를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수요조사, 개별 면담,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개소전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자에 대한 욕구를 다원적으로

파악하였다. 학부모와 아동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일시돌봄 등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등돌봄 놀이활동'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파견을 통해 30시간의 놀이활동이 돌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된다. 초등돌봄 놀이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성동 초등돌봄 서포터즈'를 결성 한 달에 한번 이상 성동구내 초등돌봄기관과 연계 놀이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부모가 돌봄과 관련 원하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 '성동구초등돌봄'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돌봄안내와 신청, 돌봄프로그램, 학부모 소통방, 기관소통방 등 다양한 돌봄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http://sdhappychild.sd.go.kr/

[그림 Ⅱ-10] 성동구 초등돌봄 홈페이지

4)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사 성북

성북구는 총 인구 가운데 아동인구가 14.9%로 2013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가운데 부산, 세종시 등 광역단위와 성북구 등 기초단위를 포함 39개 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87개에 이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를 위하여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 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실태보고, 아동권리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등 10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인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발달의 권리에 따른 모든 아동발달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아동을 보호의 대상 아닌 주체적인 시민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함에 따라 2013년과 2017년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인 성북구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 중심의 ‘성북구 온종일돌봄 사업추진위원회’와 ‘실무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성북구는 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와 공동사무국을 구성함에 따라 온종일 돌봄체계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를 연계함으로써 마을과 생활권의 돌봄체계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별로 서로 상이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기타 돌봄 기관 등 기관별 고유 사업을 중심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소 느슨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성북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다른 틈새돌봄 기관과 커뮤니티공간,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0명에서 최대 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간식까지 제공된다.

5)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시흥시는 영유아돌봄이 수요자 대비 83% 수준인 반면 초등돌봄은 10% 수준으로 전국 초등돌봄 평균 13%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흥 내 신도시 개발로 신도시 중심의 인구급증에 따른 공급부족과 함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누락 되는 등 돌봄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시는 생활권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북부권은 인구유출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노인 및 중년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부권은 영유아 인구 증가로 대상별 영유아 대상 돌봄제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부권은 최다인구 유입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 특히 초등돌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토대로 시흥시는 2018년 1월부터 시흥시 1 2 개부서, 학부모, 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시흥형 돌봄모델’을 도출하였다.

우선, 지역특성조사와 함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 희망하는 돌봄 프로그램, 희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시기적으로는 방학중 돌봄이 가장 필요하며, 프로그램으로는 학습지도, 예·체능 및 체험학습, 문화활동 등이 요구되었다. 돌봄공간으로는 학교·아파트 커뮤니티공간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여성친화·아동친화·출생대응정책 등 관련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관련 과제 발굴, 간담회, 협력실무화의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흥시 온종일 돌봄은 참여를 토대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시흥시 온종일돌봄은 시, 학교,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이다. 교육지원청은 돌봄에 대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마을은 마을 내 유휴공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주민조직이나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한다. 초등 자녀를 둔 이용가정은 만 6세에서 12세까지 돌봄

이 필요한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13시~19시까지, 방학 중는 9시 ~19시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독서, 학습, 예체능 은 물론 급·간식이다.

둘째, 돌봄서비스 자원은 비자발적 돌봄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경력단절 등 재능 있는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세 번째는 돌봄수요자와 공급자간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였다. 돌봄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선생님과 아이들간에 상호규칙을 자율로 정함으로써 아동은 돌봄공간 안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규칙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자치회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반영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도출된 8개의 시흥돌봄 모델은 세대공감마을학교형, 공공도서관형, 작은도서관형, 시흥마을학교형, 스포츠마을학교형, 청소년전용공간형, 공공형실내놀이터형, 학교속마을학교형 등 8개다.

세대공감마을학교형은 마을의 노인활동 공간을 활용 노인들이 서예, 바둑 등 어르신의 재능기부로 3세대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공도서관형은 시의 중앙도서관 및 각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형은 독서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진다. 방과후 특기적성을 위한 마을학교형, 체육회나 체육 관련 공동체가 운동이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통한 돌봄 등이다.

시흥시는 온종일돌봄을 위한 안정성, 균형성, 연계성, 지속가능성이라는 4대 핵심비전을 제 제시하였다. 안정성은 돌봄기관 확대를,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은 균형성으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은 연계성으로, 마을·주민·행정은 함께 하는 지속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

5. 대구지역 초등돌봄현황

1) 구군별 방과후초등돌봄

(1) 중구

중구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초등돌봄교실 9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등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성내동, 성내1동, 삼덕동, 대봉1동, 대봉2동, 대신동, 남산동, 남산3동은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9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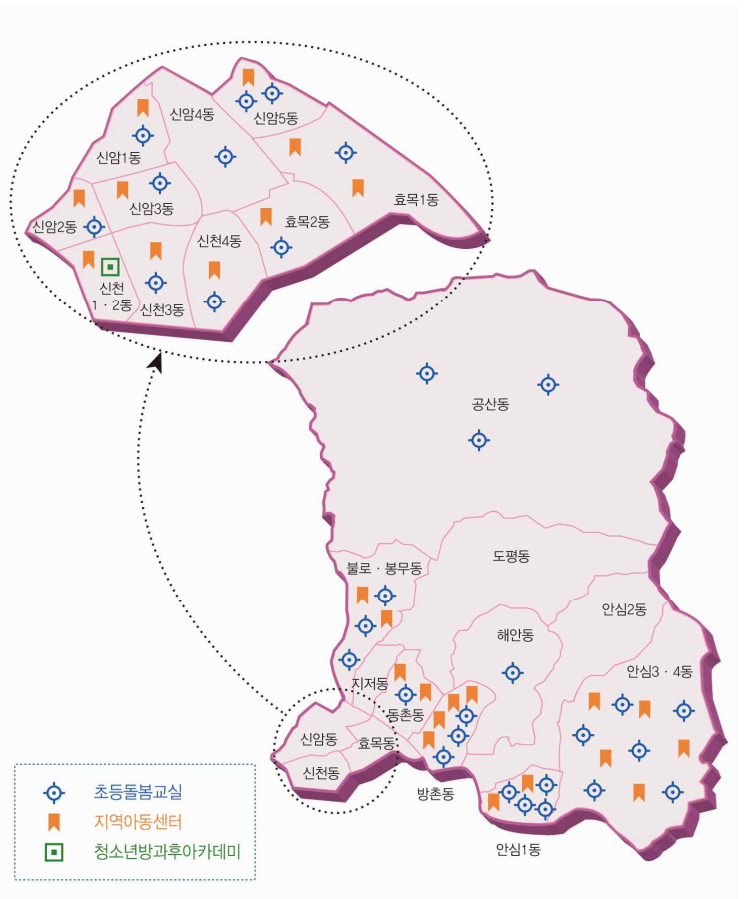
[그림 Ⅱ-11] 중구 초등돌봄기관

(2) 동구

동구는 지역아동센터 25개소, 초등돌봄교실 31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개소 등 57개소가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동은 안심3·4동이며, 다음으로 방촌동이 4개소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은 신암동이 6개소, 신천동 2개소, 효목동 2개소, 봉무동 2개소, 불로동 1개소, 입석동 1개소, 방촌동 3개소, 부동 1개소, 율하동 4개소, 서호동 1개소, 동호동 1개소, 신서동 1개소, 백안동 1개소, 지묘동 1개소, 중대동 1개소, 각산동 1개소, 숙전동 1개소 등이다.



[그림 Ⅱ-12] 동구 초등돌봄기관

(3) 서구

서구는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초등돌봄교실 17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등 53개소가 있다.

서구는 총 17개의 초등학교에서 모두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된다.



[그림 Ⅱ-13] 서구 초등돌봄기관

(4)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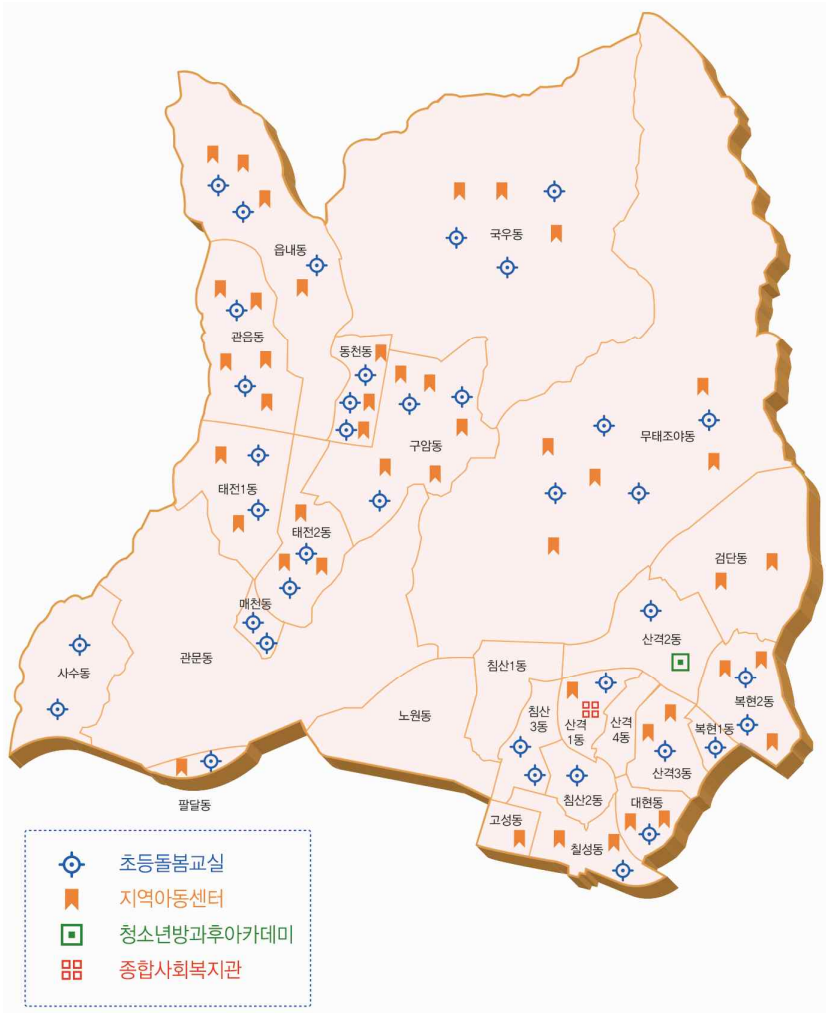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초등돌봄교실 11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등 26개소가 있다. 남구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된다.



[그림 Ⅱ-14] 남구 초등돌봄기관

(5) 북구

북구는 지역아동센터 44개소, 초등돌봄교실 38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등 84개소가 있다 전체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그림 Ⅱ-15] 북구 초등돌봄 기관

(6) 수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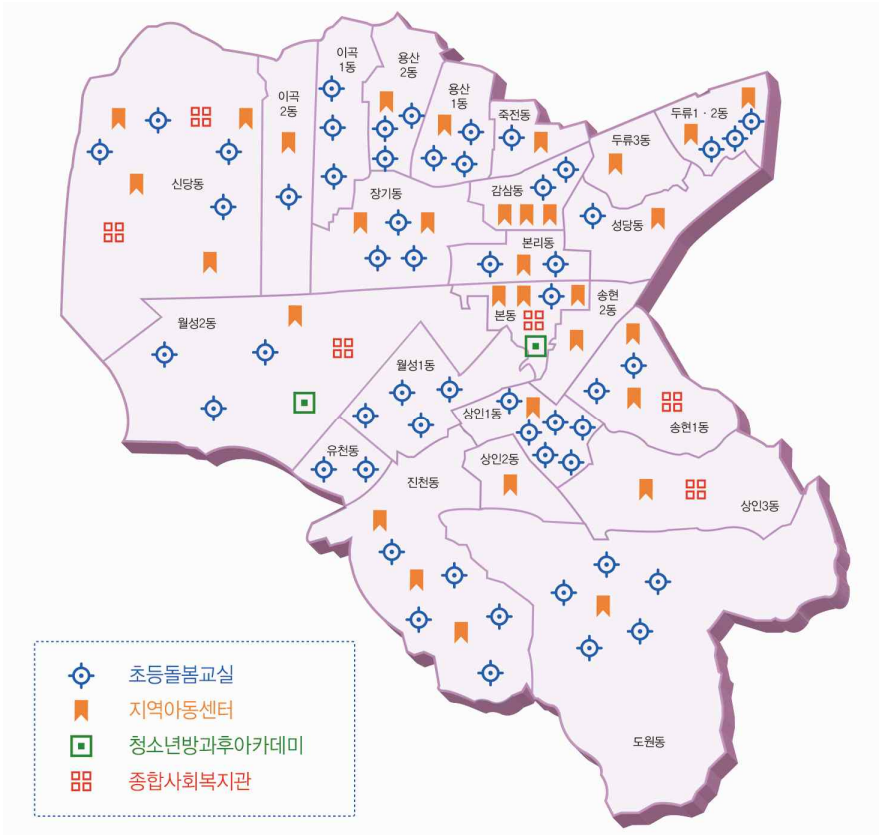
수성구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초등돌봄교실 33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등 5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성구 초등학교 33개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그림 Ⅱ-16] 수성구 초등돌봄 기관

(7) 달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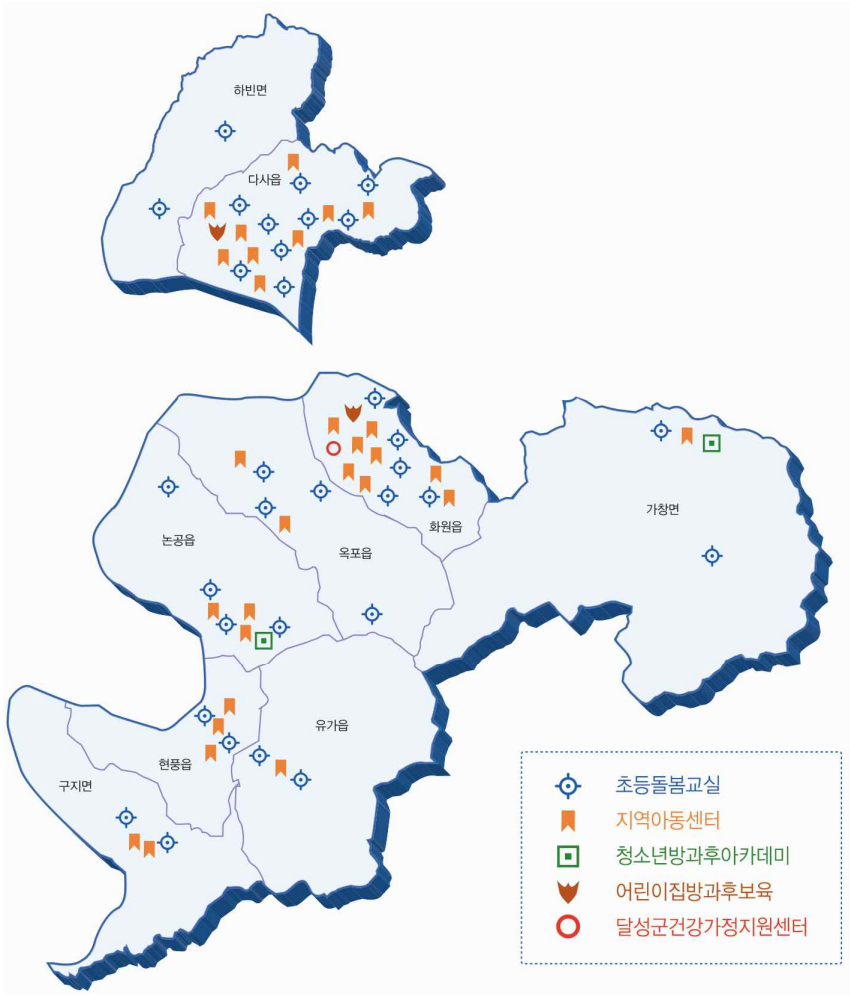
달서구는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초등돌봄교실 54개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달서구는 94개 돌봄기관이 운영되면서 초등돌봄인프라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 Ⅱ-17] 달서구 초등돌봄 기관

(8) 달성군

달성군은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초등돌봄교실 32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2개소 등 65개소에서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그림 Ⅱ-18] 달성군 초등돌봄 기관

2) 구·군별 인구현황

대구시는 총229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달서구가 55개교, 학생수 31,66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학생수를 보면 1학년은 21,081명으로 6세가 20,53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저학년은 61,662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4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3> 대구지역 초등학교수와 학생수(2018)

(단위: 개소, 실,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중구	10	195	4,306
동구	32	747	17,150
서구	17	300	6,003
남구	11	222	4,570
북구	38	1,007	22,867
수성구	34	949	23,630
달서구	55	1,364	31,660
달성군	32	689	14,974
계	**229**	**5,473**	**125,160**

<표 Ⅱ-14> 대구지역 초등학생 연령별・학년별(2018)

(단위: 명)

구분	합계	만 5세 이하	만 6세	만 7세	만 8세	만 9세
총계	**125,160**	**62**	**20,626**	**20,864**	**19,611**	**20,889**
1학년	21,081	62	20,533	462	14	4
2학년	20,892	-	93	20,310	480	6
3학년	19,689	-	-	92	19,024	558
4학년	20,796	-	-	-	93	20,185
5학년	22,383	-	-	-	-	136
6학년	20,319	-	-	-	-	-

구분	만 10세	만 11세	만 12세	만 13세	만 14세 이상
총계	**22,462**	**20,132**	**492**	**15**	**7**
1학년	4	1	1	-	-
2학년	2	-	-	1	-
3학년	14	1	-	-	-
4학년	502	12	3	-	1
5학년	21,689	533	20	3	2
6학년	251	19,585	468	11	4

2018년 기준 대구시는 초등돌봄과 관련 1학년은 23.6%, 2학년은 18.6%가 돌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구지역 초등학생 돌봄은 평균 7.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서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Ⅱ-15> 2018 대구지역 초등돌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전체학생수 (A)	20,371	20,152	18,923	20,030	21,605	19,592	**120,673**
돌봄참여학생수(B)	4,802	3,753	530	149	37	8	**9,339**
참여비율 (B/A*100)	23.6	18.6	3.1	0.7	0.2	0.04	**7.7**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가구유형별로 보면 교육비 지원대상 33.7%, 교육비 비지원대상 66.3%이며, 그 가운데 맞벌이가정이 60.5%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16> 2018 대구지역 가구유형별 초등돌봄 참여 현황

(단위: 명, %)

가구유형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비 비지원대상		계
	저소득층	한부모	기타 (학교장추천)	맞벌이	기타 (학교장추천)	
대상학생수 (비율)	2,116 (22.7)	249 (2.7)	781 (8.4)	5,654 (60.5)	537 (5.7)	**9,339 (100)**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아동의 귀가시간으로 초등돌봄을 살펴보면 16시 이전 귀가가 66.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6시～17시까지 30.5%, 17시～19시까지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7> 2018 대구지역 귀가시간별 초등돌봄 이용아동

(단위: 명, %, 교)

가구유형	16시이전	16시30분까지	17시까지	18시까지	19시까지	계
오후돌봄	6,029 (66.3)	1,506 (16.6)	1,264 (13.9)	270 (3.0)	20 (0.2)	**9,089** **(100)**
방과후 연계형	175 (70.0)	57 (22.8)	18 (7.2)	-	-	**250** **(100)**
계	**6,029** **(66.3)**	**1,506** **(16.6)**	**1,264** **(13.9)**	**6,029** **(66.3)**	**1,506** **(16.6)**	**9,339** **(100)**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대구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방과 후 학습지도·상담 및 교육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교실이 증가됨에 따라 돌봄공간에 대한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실은 창의적 체험활동, 예술·체육활동, 저학년 놀이중심 교육활동 등이다.

<표 Ⅱ-18> 2018 돌봄 운영방식별 돌봄 이용 현황

(단위: 실, 명, %)

가구유형	돌봄교실수			돌봄 이용 학생수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계	1～2학년	3～6학년	계
전국	11,183 (90.2)	1,216 (9.8%)	**12,399** **(100)**	231,083 (88.4)	30,025 (11.6)	**261,288** **(100)**
대구	417 (94.1)	26 (5.9%)	**443** **(100)**	8,581 (91.6)	784 (8.4)	**9,365** **(100)**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6. 소결

초등아동돌봄과 관련 선행연구와 돌봄 정책을 살펴보았다. 초등돌봄의 요구가 확대 되면서 저학년 중심의 돌봄에서 전체 학년 중심으로 돌봄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구군별로 초등돌봄교실이 전체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과후연계돌봄교실 등이 운영되면서 초등자녀에 대한 틈새 돌봄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제주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을 지역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연계 돌봄 유형을 모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자녀의 돌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의 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지역에서도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한 대구시의 수준동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키움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연계하여 추진되며,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별도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의 특화 돌봄 기능을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시 모델을 대구지역에 적용하게 될 경우, 우선, 공간에 대한 운영 또는 임차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복지관을 활용하는 경우 임차등의 비용이 고려대상은 아니지만, 민간영역의 공동체나 협동조합의 경우 지속적인 임대에 따른 공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운영의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온종일돌봄 선도사업과 관련 대구지역의 시사점은 대구교육청의 지역사회돌봄협의체 이외 시·구·군의 돌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선도사업의 사례에서 대부분 기존 교육청 이외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사회돌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수요자-공급자-정책전달자-수혜자 간의 끊임없는 협력과 소통이 사업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했다.

또한 현재 돌봄 조직과 달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인력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사례에서 보듯이 키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간조직지원 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조직 필요성 등에 대한 지역 내 협의가 필요하다.

Ⅲ.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 설문조사 결과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실태조사 개요 59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돌봄 실태조사 결과 61

3. 돌봄 관계자 FGI 결과 80

4. 소결 89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돌봄 실태조사 개요

2018년 말 범정부 차원에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은 총 129,935명의 학생(초등학교 예비 입학자 조사포함)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56,879가구, 한부모가구 5,894가구, 교육비지원 대상 27,002가구와 해당되지 않는 가구 40,160가구 등으로 조사가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590명으로 가장 희망하는 돌봄시간은 방과후부터 오후 4시까지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후 3시 5,630명, 오후 5시 5,638명 등으로 오후 5시까지에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으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대구시 8개 구군으로 표본은 총 810명으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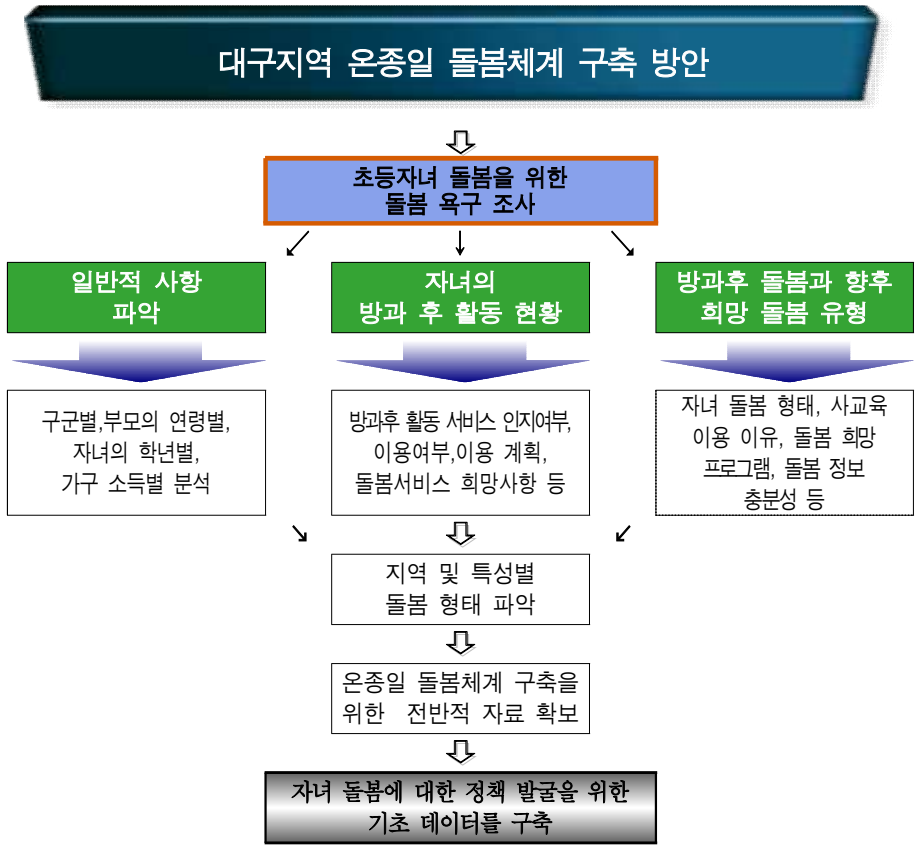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크게 일반적사항, 자녀의 일반적사항, 자녀의 방과후 활동, 방과후 돌봄과 향후 희망 돌봄 유형, 인구 통계 특성 등이다.

〈표 Ⅲ-1〉 조사문항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일반적 사항	응답자 성별,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응답자 연령, 아동과의 관계, 맞벌이 여부, 응답자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의 일반적 사항	자녀의 학년,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별
자녀의 방과후 활동 현황	초등돌봄교실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방과후학교/교실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계획, 지역아동센터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다함께 돌봄센터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아이돌봄서비스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공동육아나눔터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국·수 학습학원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예체능학원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어학학원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개인 및 그룹과외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학습지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의향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자녀의 방과후 활동 현황	공적(돌봄)서비스에 보내는 이유, 공적(돌봄)서비스 기관 선택 우선고려 사항, 공적(돌봄)서비스 추가 희망 사항, 방과후교실(학교) 이용 프로그램, 공적(돌봄)서비스에 보내지 않는 이유,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사교육 이용 평균
방과후 돌봄과 향후 희망 돌봄 유형	2년 이내 일을 그만 둘 의향, 하교 후 돌보는 대상, 사교육 이용이유, 돌봄 공백 여부, 돌봄 공백 체감 시간대, 추가 돌봄서비스 제공희망 방식, 희망 돌봄 서비스, 공적돌봄공간 추가 및 확대 시 제공희망 프로그램, 자녀돌봄 관련 정보 습득 경로, 돌봄 정보 제공 정도, 코디네이터서비스 이용 의향, 대구시 초등돌봄 지원 희망 정책
인구통계특성	현거주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월평균 소득



[그림 Ⅲ-1]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돌봄 실태조사 결과

가. 응답자 일반 특성

조사응답자 표본 특성을 보면 수성구가 1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8.6%가 응답을 하였다. 아동과의 관계는 엄마가 67.8%로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여성응답자와 연관성이 있다. 응답자의 60.7%가 맞벌이를 하고 응답하였다.

<표 Ⅲ-1> 응답자 특성

표본 특성		사례수(명)	비율(%)
계		(810)	100.0%
현 거주지	중구	(80)	9.9%
	동구	(102)	12.6%
	서구	(101)	12.5%
	남구	(91)	11.2%
	북구	(102)	12.6%
	수성구	(123)	15.2%
	달서구	(108)	13.3%
	달성군	(103)	12.7%
성별	여성	(556)	68.6%
	남성	(254)	31.4%
본인의 연령	20대	(3)	0.4%
	30대	(272)	33.6%
	40대	(482)	59.5%
	50대	(51)	6.3%
	60대 이상	(2)	0.2%
아동과의 관계	부	(251)	31.0%
	모	(549)	67.8%
	(외)할아버지	(3)	0.4%
	(외)할머니	(5)	0.6%
	기타보호자	(2)	0.2%
맞벌이 여부	그렇다	(492)	60.7%
	아니다	(318)	39.3%

표본 특성		사례수(명)	비율(%)
계		(810)	100.0%
본인의 직업	직업없음	(178)	22.0%
	단순노무직(노동,청소,경비 등)	(21)	2.6%
	판매 및 서비스직	(73)	9.0%
	사무직(회사원,공무원)	(274)	33.8%
	기능관련근로자(공장, 기술직)	(55)	6.8%
	자영업(음식점, 미용실 등)	(54)	6.7%
	전문직(교사,의사 등)	(99)	12.2%
	기타	(56)	6.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6)	0.7%
	100~200만원미만	(45)	5.6%
	200~300만원미만	(129)	15.9%
	300~400만원미만	(210)	25.9%
	400~500만원미만	(212)	26.2%
	500만원이상	(200)	24.7%
	무응답	(8)	1.0%
자녀학년	초등학교 1학년	(183)	22.6%
	초등학교 2학년	(164)	20.2%
	초등학교 3학년	(118)	14.6%
	초등학교 4학년	(110)	13.6%
	초등학교 5학년	(93)	11.5%
	초등학교 6학년	(142)	17.5%
자녀성별	여아	(425)	52.5%
	남아	(385)	47.5%

나. 방과후 돌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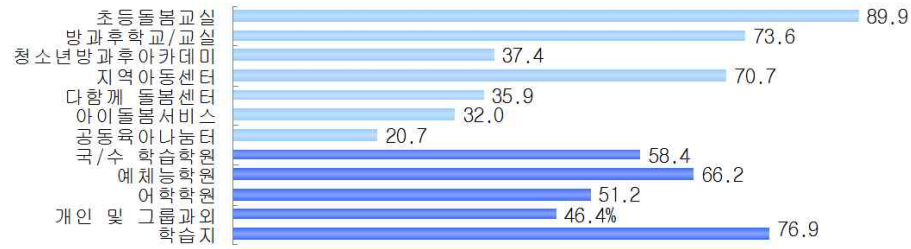
1)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자녀가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면 활용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운영중인 정책의 인지여부를 설문한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8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적 영역은 학습지에 대한 인지정도가 76.9%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

적으로 사적영역의 인지도 가운데 개인 및 그룹과외의 인지도는 46.4%로 나타났으며, 공적영역의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장 낮은 2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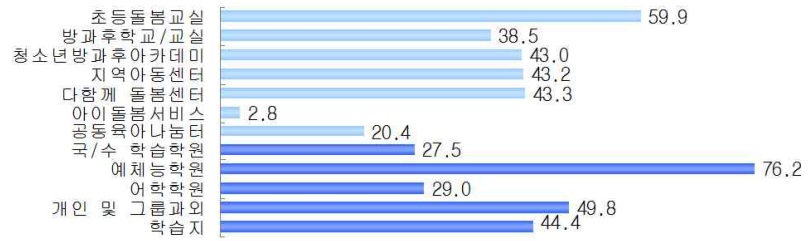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Ⅲ-2] 방과후 돌봄 공적·사적 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정규 수업 이후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9%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적 영역의 경우 예체능학원의 이용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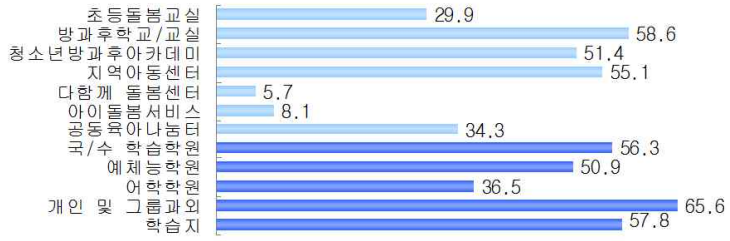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Ⅲ-3] 방과후 돌봄 공적·사적 돌봄 서비스 이용정도

향후 자녀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계획 여부과 관련 방과후학교/교실 58.6%, 지역아동센터 55.1%로 공적영역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적 영영은 개인 및 그룹과외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지와 국/수학습학원이 55%를 상회하여 나타남에 따라 자녀의 학습 역량 강화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그림 Ⅲ-4] 향후 방과후 돌봄 공적·사적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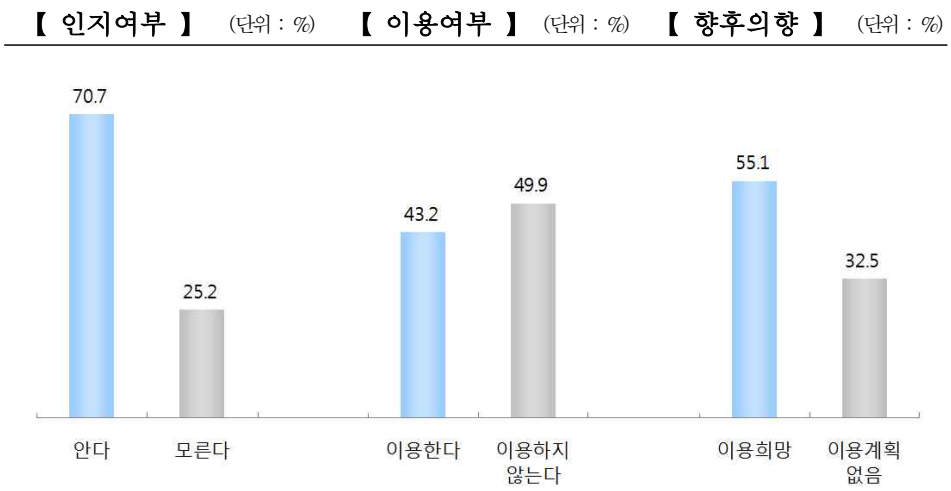
공적서비스 인지여부를 토대로 현재 이용 여부와 향후 의향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계획은 방과후학교/교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반면 방과후학교/교실은 자녀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Ⅲ-3〉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와 향후 이용 의향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향후의향
공적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89.9%	59.9%	29.9%
	방과후학교/교실	73.6%	38.5%	58.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7.4%	43.0%	51.4%
	지역아동센터	70.7%	43.2%	55.1%
	다함께 돌봄센터	35.9%	43.3%	5.7%
	아이돌봄서비스	32.0%	2.8%	8.1%
	공동육아나눔터	20.7%	20.4%	34.3%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여부는 달성군이 96.1%, 북구 92.2%, 맞벌이부부 92.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이용은 동구 88.2@, 기능관련근로자 80.0%로 높게 나탔으며, 향후 공적돌봄을 이용하기 희망하는 경우는 중구 41.3%와 (외)할머니 60.0%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인지여부가 70.7%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용과 향후 희망도 55.1%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1년부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향후 의향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여부는 동구 64.7%와 중구 61.3%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용은 82.4%와 기능관련근로자 8.2%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5] 지역아동센터 인지여부・이용여부・향후 이용 의향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이 제공됨에 따라 전반적인 인지도가 35.9%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남구주민의 경우 47.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 39.6%로 나타난 반면 향후 이용 의향과 관련 4.4%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사적서비스에 있어 인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지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예체능학원이며, 향후 이용 의향은 개인 및 그룹과외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4〉 사적서비스 인지 정도와 향후 이용 의향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향후의향
사적 서비스	국·수 학습학원	58.4%	27.5%	56.3%
	예체능학원	66.2%	76.2%	50.9%
	어학학원	51.2%	29.0%	36.5%
	개인 및 그룹과외	46.4%	49.8%	65.6%
	학습지	76.9%	44.4%	57.8%

현재 국·수 학습학원은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58.4%, 이용한다는 응답은 27.5%, 향후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56.3%로 조사되었다. 수성구에서 인지여부가 73.2%로 가장 높고 맞벌이부부 59.8%.로 나타났다. 이용여부는 초등저학년보다 6학년 자녀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중구와 동구로 7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학 학원과 관련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51.2%, 이용한다는 응답은 29.0%, 향후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36.5%로 조사되었으나, 인지는 서구 62.4%와 달성군61.2%에서 가장 높게 나탔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향은 수성구 52.0%, 60대 이상 50.0%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과외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4%, 이용한다는 응답은 49.8%, 향후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65.6%로 조사되었다. 세부 특성별로 분석해본 결과, 인지여부는 수성구 59.3%, 직업없음 61.2%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여부는 동구 67.6%,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61.5%에서 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향 역시 동구 75.5%, 초등학교 4학년 자녀 7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견해

공적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와 관련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낮은 비용의 응답이 이 선다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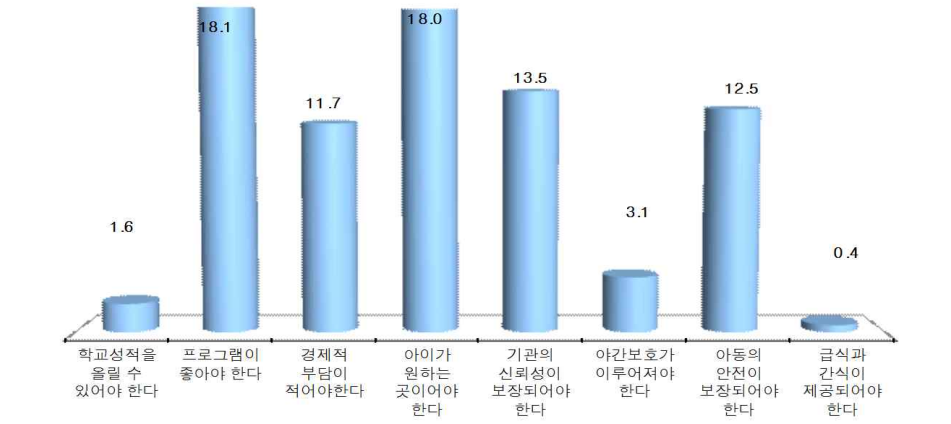
은 18.6%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 보면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38%, 비용이 저렴해서 28.5%, 다양한 프로그램 2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순위	중복응답	
1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38.0%
2	비용이 저렴해서	28.5%
3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20.5%
4	사회성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17.0%
5	자녀가 가기를 희망해서	16.2%
6	특기적성개발을 위하여	14.7%
7	식사 및 간식 해결	6.8%
8	사교육을 보낼 형편이 안되서	5.3%
9	학습 및 숙제지도	4.0%
10	기타	1.2%
합계		**100%**

다음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과 관련 프로그램이 18.1%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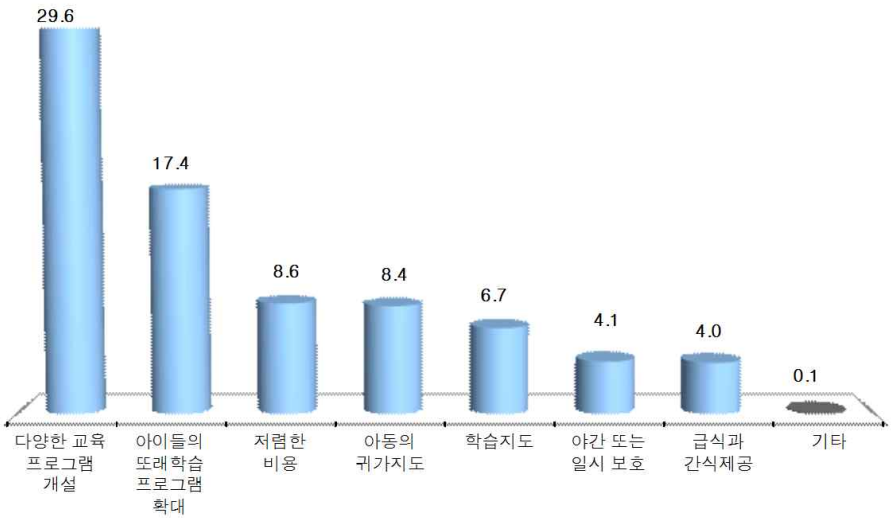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6] 공적 돌봄서비스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공적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하기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29.6%로 높게 타나났다. 대부분의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사적 영역에 비하여 평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돌봄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계시 우선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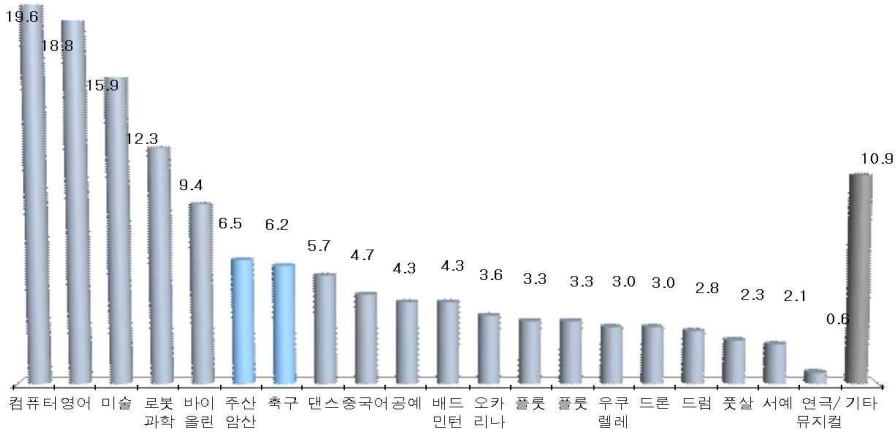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7] 공적 돌봄 기관 서비스 고려 사항

방과후교실 이용과 관련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19.6%, 영어 18.8%, 미술 15.9%, 로봇과학 12.3%, 바이올린 9.4%, 주산암산 6.5%, 축구 6.2%, 댄스 5,7%, 중국어 4.7%, 공예・배드민턴 각 4.3%, 오카리나 3.6%, 기타 10.9% 등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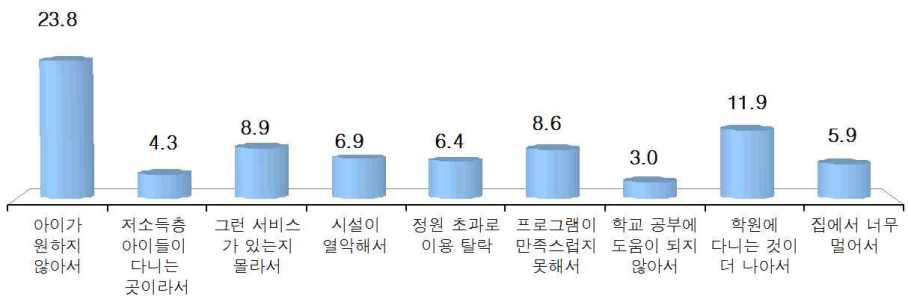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8] 방과후교실 이용 프로그램

반면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23.8%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원에 다니는 것이 더 나아서 11.9%,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8.9%,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8.6%, 시설이 열악해서 6.9%, 정원 초과로 이용 탈락 6.4%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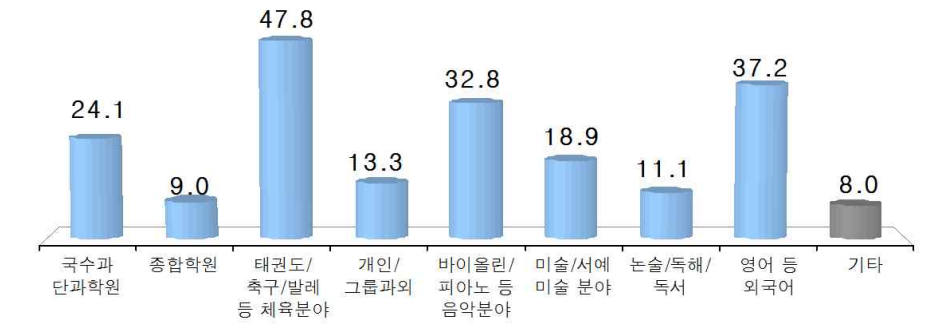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9] 공적서비스에 보내지 않는 이유

4) 사교육 이용 사유

2019년 자녀가 이용한 사교육과 관련 태권도/축구/발레 등이 전체의 47.8%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영어 등 외국어 37.2%, 바이올린/피아노 등 음악 분야 32.8%, 국·수·과 단과학원 24.1%, 미술/서예 등 미술 18.9%, 개인/그룹과외 13.3%, 논술/독해/독서 11.1%, 종합학원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0]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사교육 이용 평균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하루 평균 이용 학원은 1.84개, 하루 평균 참여시간은 2.27시간, 일주일 이용학원은 2.72개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학원비는 4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달서구 2.09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1.95개,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은 동구 2.70시간, 초등학교 6학년 2.64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일주일동안 이용하는 학원은 평균 달서구가 3.07개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 2.98개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달 학원비는 평균 43.46만원에 비해 수성구는 56.1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 50.78만원으로 다른 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Ⅲ-6> 사적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사례수	하루 평균 이용 학원	하루 평균 참여 시간	일주일 이용학원	한 달 학원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810)**	**1.84**	**2.27**	**2.72**	**43.46**
지역	중구	(80)	1.83	2.03	2.77	42.83
	동구	(102)	1.98	2.70	2.68	43.28
	서구	(101)	1.47	2.00	2.18	33.09
	남구	(91)	1.73	2.04	3.06	37.62
	북구	(102)	1.90	2.34	2.60	43.63
	수성구	(123)	1.77	2.21	2.90	56.18
	달서구	(108)	2.09	2.50	3.07	47.35
	달성군	(103)	1.93	2.20	2.47	38.80
자녀의 학년	1학년	(183)	1.75	2.04	2.95	43.89
	2학년	(164)	1.89	2.21	2.54	36.95
	3학년	(118)	1.73	2.02	2.98	40.44
	4학년	(110)	1.95	2.33	2.68	45.58
	5학년	(93)	1.80	2.51	2.54	43.13
	6학년	(142)	1.95	2.64	2.58	50.78

공적 돌봄 이외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 성적과 실력 향상이 64.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가 원하는 학원 48.1%,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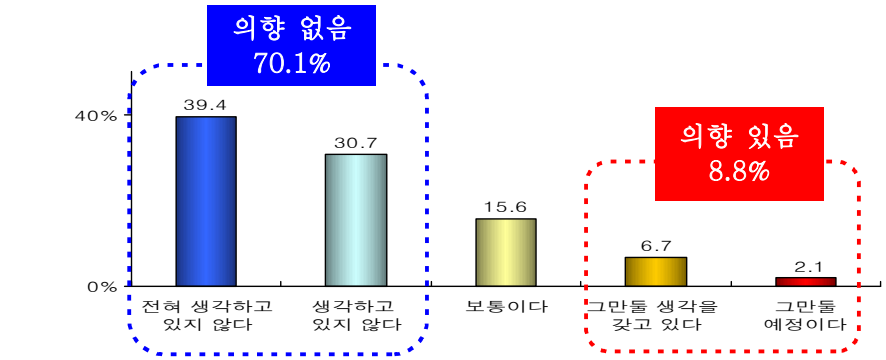
<표 Ⅲ-7>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순위	이용 사유	%
1	성적 및 실력 향상	**64.8%**
2	자녀가 원하는 학원이라서	48.1%
3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31.0%
4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26.8%
5	마땅히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15.1%
6	간식 등이 제공되어서	3.1%
7	기타	3.7%
계		**100%**

5) 돌봄과 경제활동

자녀를 돌보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2년 이내에 그만 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30.7%, 보통이다 15.6%,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6.7%), 그만둘 예정이다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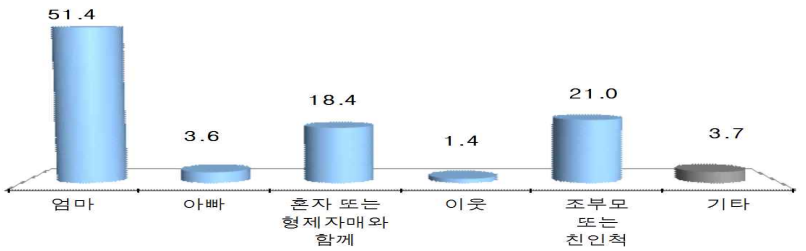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1] 2년 이내 일을 그만둘 의향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자녀를 돌보는 주된 양육자에 대하여 자녀의 엄마가 5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 21.0%,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18.4%, 아빠 3.6%, 이웃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하교 후 돌보는 대상 】 (단위: %)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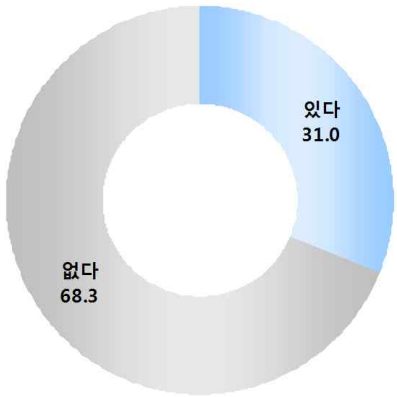
[그림 Ⅲ-12] 정규 수업 이후 자녀를 돌보는 주된 양육자

6) 체감하는 돌봄 공백

현재 필요한 돌봄 수요와 관련 돌봄 공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 공백이 없다는 응답은 응답이 6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 돌봄이 필요한 돌봄 공백 여부를 세부 특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돌봄 공백이 있다는 응답은 동구 41.2%와 초등학교 1학년 자녀 4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백이 없다는 응답은 수성구에서 78.0%로 높게 나타남 따라 지역별로 돌봄의 공백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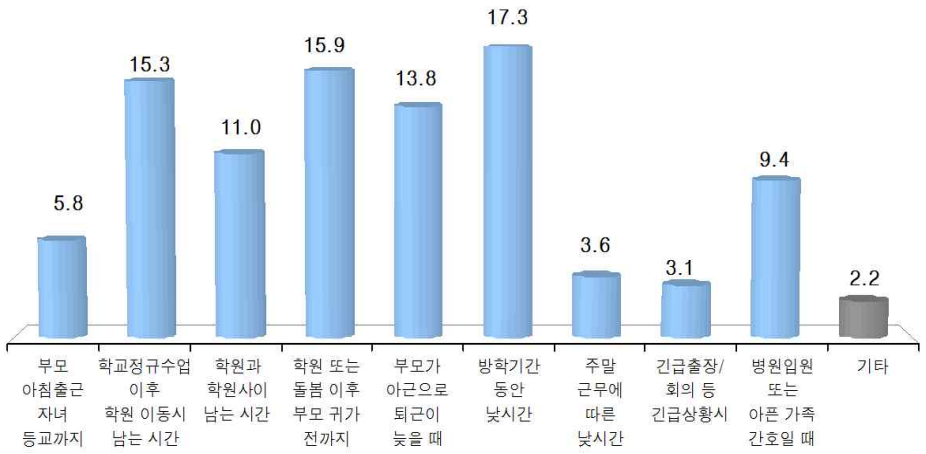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3] 돌봄 공백에 대한 인지 여부

돌봄 공백 체감 시간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방학기간 동안 낮시간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원 또는 돌봄 이후 부모 귀가 전까지 15.9%, 학교정규수업 이후 학원 이동시 남는 시간 15.3%, 부모가 야근으로 퇴근이 늦을 때 13.8%, 학원과 학원사이 남는 시간 11.0%, 병원입원 또는 아픈 가족 간호일 때 9.4%, 부모 아침출근-자녀등교까지(등교전 준비) 5.8%, 주말 근무에 따른 낮시간 3.6%, 긴급출장/회의 등 긴급상황

시 3.1%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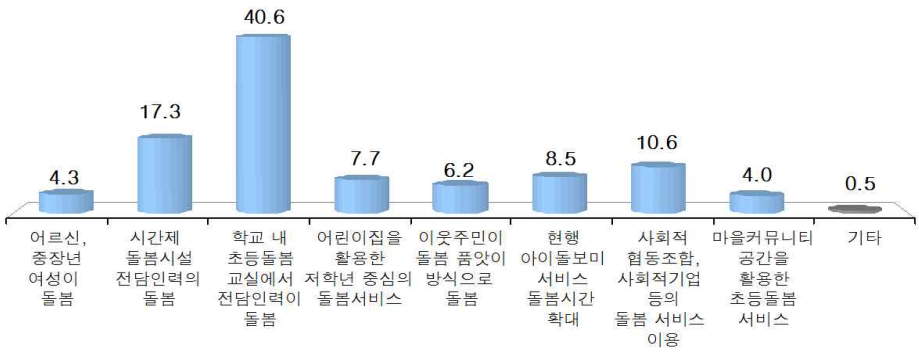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4] 돌봄 공백 체감시간

7) 신규 돌봄 지원 희망 서비스

신규 자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에서 전담인력이 돌봄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제 돌봄시설에서 전담인력의 돌봄 17.3%, 아동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돌봄 서비스 이용 10.6%, 현행 아이돌보미서비스 돌봄시간 확대8.5%, 어린이집을 활용한 저학년 중심의 돌봄서비스 7.7%, 이웃주민의 돌봄 품앗이 방식으로 돌봄 6.2%, 시・구・군・읍・면・동에서 제공한 돌봄공간에서 어르신・중장년 여성의 돌봄 4.3%, 마을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한 초등돌봄서비스 4.0% 등이다. 전반적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우선적인 희망사항은 학교의 공적공간의 돌봄이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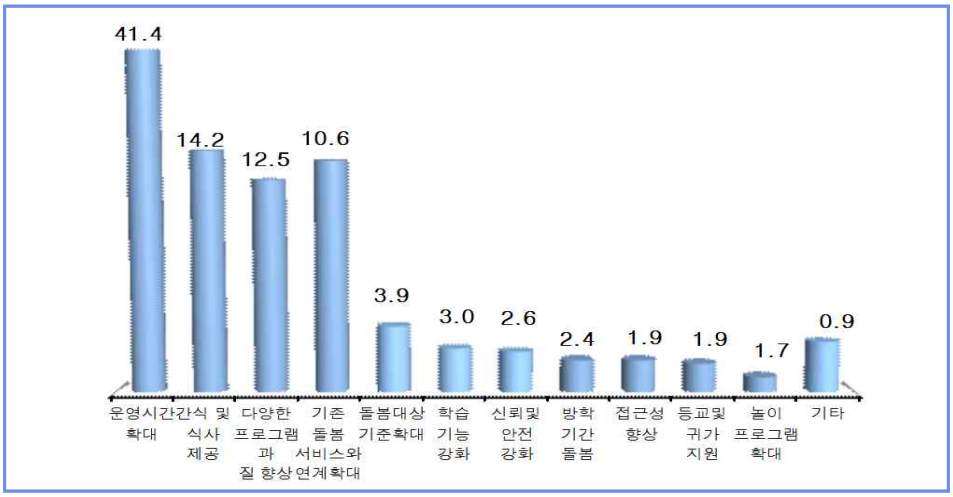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5]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

희망 돌봄 유형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운영시간 확대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간식 및 식사 제공 14.2%,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질 향상 12.5%,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 확대 13.6%, 돌봄 대상·조건 등 확대 3.9%, 학습기능 강화 2.6%, 신뢰 및 안전강화 2.4%, 방학기간 돌봄 및 접근성 향상 각 1.9%, 등교 및 귀가 지원 1.7%, 놀이 프로그램 확대 0.9% 등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Ⅲ-16]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표 Ⅲ-8>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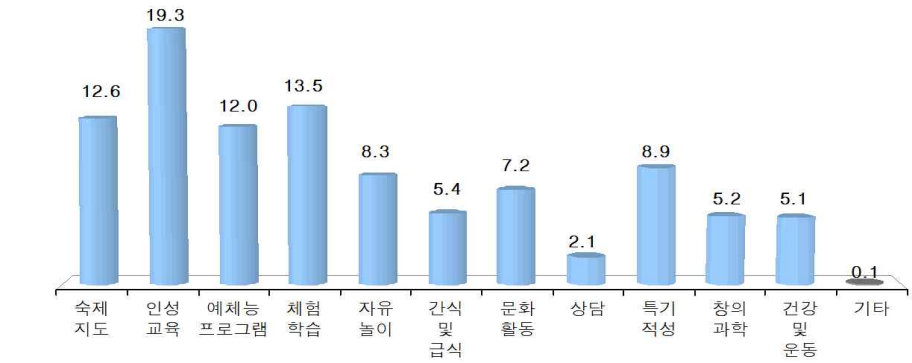
[개방형 질문: 조사 대상자 전체(n=810) 중 응답자에 한해(응답률 57.4%, n=465)]

운영시간 확대	41.4(%)	공휴일・주말・야간 돌봄/ 돌봄 시간 연장/ 2시(3시, 4시, 5시)까지 돌봄 운영/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6시(7시, 8시)까지 돌봄 운영/ 출근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8시 이전 등교 및 돌봄/ 방학기간 오후 3시로 시간 연장/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돌보미 서비스/ 하교 후 방과 후 사이, 하교 후 학원차량 탑승 전, 방과 후와 방과 후 사이 등 도서관과 운동장 이외에 학교 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었으면/ 초등돌봄교실 2시(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까지 운영/ 초등돌봄교실 야간 운영/ 초등돌봄교실 시간 선택이 가능해졌으면/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이 끝난 후 30분 정도 돌봄/ 방과 후 연계 5시(6시)까지 운영/ 방과후학교 시간대가 다양했으면 함/ 지역아동센터 5시(7시)까지 운영/ 지역아동센터 퇴근시간까지 돌봄 등
간식 및 식사 제공	14.2(%)	간식을 포함한 돌봄/ 방학 때 점심 제공/ 야간 간식 및 식사 제공/ 학원에 가기 전 간식 제공/ 학원 하원 이후 식사 제공/ 초등돌봄교실 간식 제공/ 정규수업 후 방과 후 교실에서 간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간식 및 식사 제공(방학 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향상	12.5(%)	다양한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활동/ 사교육을 줄이고 아이들이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방과후학교 학습 이외의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개발/ 방학 때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양교육/ 명상/ 예절교육/ 창의력을 개발시킬 있는 프로그램/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학기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다양한 체험학습/ 정기적 프로그램 이외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설/ 특수교육 필요/ 전문 인력의 지도/ 돌봄 교사 증원 등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확대	13.6(%)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내 돌봄/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한 돌봄/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가사 지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마을커뮤니티/ 이웃에서 돌봄 등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연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돌봄 대상, 조건 등 확대	3.9(%)	고학년도 이용 가능한 돌봄 및 시설/ 돌봄 연령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인원수 확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돌봄 이용 조건 완화 등
학습기능강화	2.6(%)	돌봄교실의 학습 지원/ 문제집을 풀거나 수업 진행/ 저녁 시간대 공부 돌봄/ 놀이 방식의 학습/ 편안하면서 교육적인 휴식/ 자질이 충분한 지도교사를 동반한 야외활동을 포함한 놀이학습 등
신뢰 및 안전강화	2.4(%)	갑작스런 사고 및 사정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등
방학기간 돌봄	1.9(%)	방학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방학기간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 돌봄 등

접근성 향상	1.9(%)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쉽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동네마다 돌봄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음 등
등교 및 귀가지원	1.7(%)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등교 지도/ 등교 서비스 운영/ 귀가 지도/ 귀가 조치/ 귀가 서비스 운영 등
놀이프로그램 확대	0.9(%)	재미있게 놀 수만 있어도 만족/ 아이가 원하는 놀이 등
기타	3.0(%)	사교육과 연계하지 않으면 하원을 시켜주지 않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돌봄 서비스 입·퇴소 문자알림 서비스/ 빈 기간 없이 꾸준히 운영되었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함께 있어주는 돌봄 등

돌봄 공간의 확대 개편시 희망 프로그램과 관련 대해 알아본 결과, 인성교육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으로 체험학습 13.5%, 숙제지도 12.6%, 예체능프로그램 12.0%, 특기적성 8.9%, 자유놀이 8.3%, 문화활동 7.2%, 간식 및 급식 5.4%, 창의과학 5.2%, 건강 및 운동 5.1%, 상담 2.1%로 응답이 조사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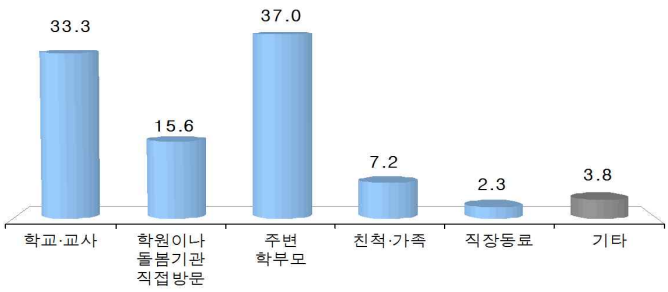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7] 향후 희망 프로그램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보 습득 경로와 관련 해서 알아본 결과, 주변 학부모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으로 학교·교사 33.3%, 학원이나 돌봄기관 직접방문 15.6%, 친척·가족 7.2%, 직장동료 2.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정보는 또래 친구들의 학부모와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학습이나 프로그램 등과 관련 학부모 설명회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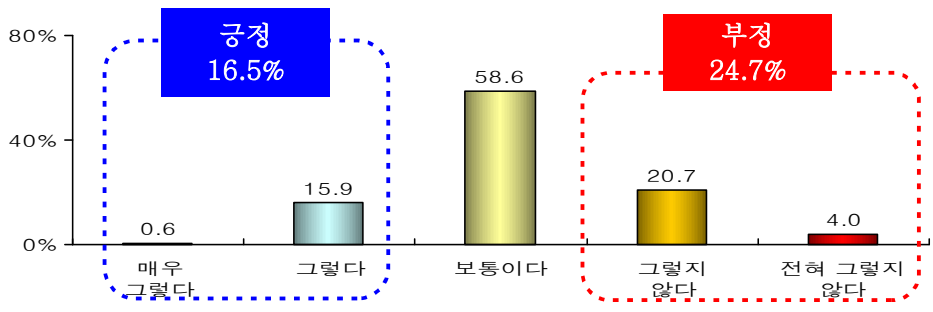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8] 자녀 돌봄 정보 습득 경로

자녀돌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통이다 라는 유보적인 응답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 응답이 24.7%(그렇지 않다 20.7% + 전혀 그렇지 않다 4.0%)로 긍정적 응답 16.5%(매우 그렇다 0.6% + 그렇다 15.9%)보다 +8.2%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자녀의 돌봄이나 사교육 등과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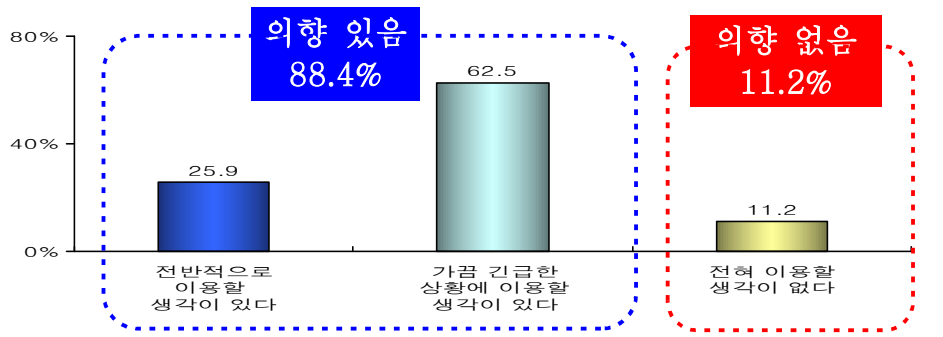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19] 자녀 돌봄 정보 수준의 만족도

자녀돌봄을 위하여 돌봄코디네이터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끔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돌봄과 관련 돌봄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돌봄코디네이터 등이 있을 경우 10명 가운데 8.8명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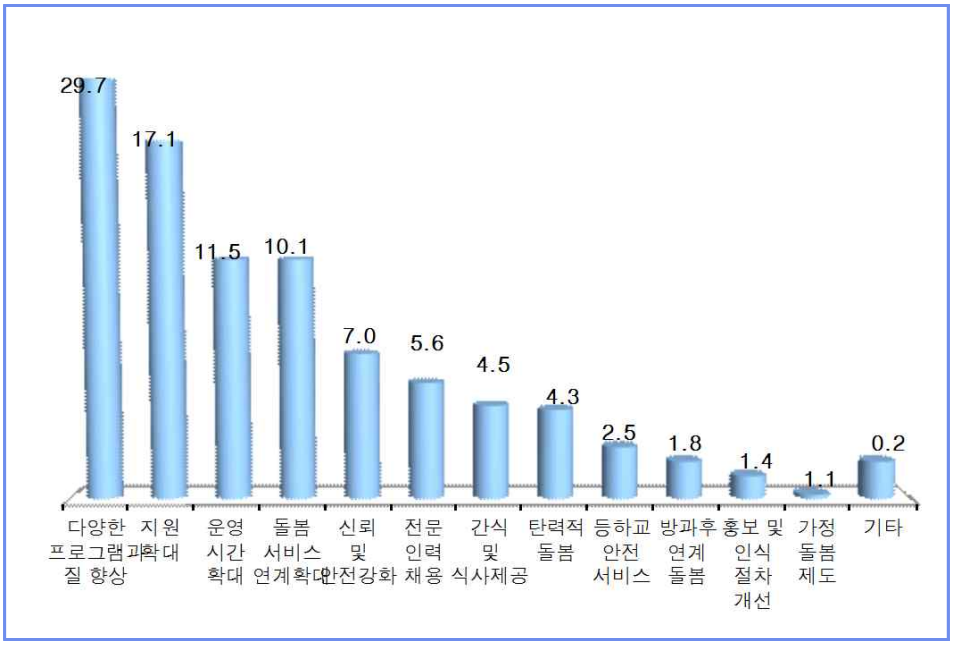


※ 무응답은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Ⅲ-20] 돌봄코디네이터 이용 의향

향후 초등돌봄 지원 희망 정책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향상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으로 지원 확대 17.1%, 운영시간 확대 11.5%, 돌봄서비스 연계 확대 11.5%), 신뢰 및 안전 강화 7.0%, 전문인력 채용 5.6%, 간식 및 식사제공 4.5%, 탄력적 돌봄 4.3%, 등하교 안전서비스 2..5%, 방과후 연계 돌봄 1.8%, 홍보 및 인식·절차 개선 1.1%, 가정돌봄제도 0.2%의 순임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존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홍보와 인식절차 개선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한 정보제공 기관 등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위: %)



[그림 Ⅲ-21] 향후 희망 돌봄 서비스

3. 돌봄 관계자 FGI 결과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와 돌봄 관계자에 대한 FGI를 수행하였다.

가. 교육청 관계자 FGI

대구지역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다. 동부, 서부, 남부, 달성지원청이다. 정부는 2018년 말 범정부 차원에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은 총 129,935명의 학생(초등학교 예비 입학자 조사포함)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56,879가구, 한부모가구 5,894가구, 교육비지원 대상 27,002가구와 해당되지 않는 가구 40,160

가구 등으로 조사가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590명으로 가장 희망하는 돌봄시간은 방과후부터 오후 4시까지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 업무 담당자에 대한 FGI를 통해 학교중심의 돌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Ⅲ-9>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 업무 담당자 FGI

구분	담당업무 수행기간	업무유형
A	6개월	방과후
B	1년	온종일
C	1년 6개월	통합
D	1년	통합
E	6개월	통합
F	6개월	육아나눔터

초등돌봄 업무 담당자와의 FGI를 통해 몇 가지 공적돌봄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절된 돌봄업무와 돌봄 연속성 부재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사업 등 사업별로 업무담당이 상한 실정이다. 사업관련 부처의 차이와 함께 업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교육청과 교육청지원청 역시 개별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청은 돌봄과 관련 수요를 전년도 연말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희망하는 시간은 주로 방과후 부터 오후 4시까지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등돌봄 및 방과후 업무 담당자의 근속기간은 대부분 순환보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담당자의 이

동은 돌봄정책과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 조절, 돌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방과후 돌봄은 민간영역으로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반면,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실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급·간식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모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저학년의 경우 오후돌봄이 비교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2018년 온종일돌봄 확대 정책 발표 이후 2019년부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방과후연계형으로 돌봄이 확대됨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사업 안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GI결과 전반적인 입장은 등교 이후 방과후까지 초등학생이 10시간 정도를 교실이동만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연속성이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보았다. 초등돌봄은 정규수업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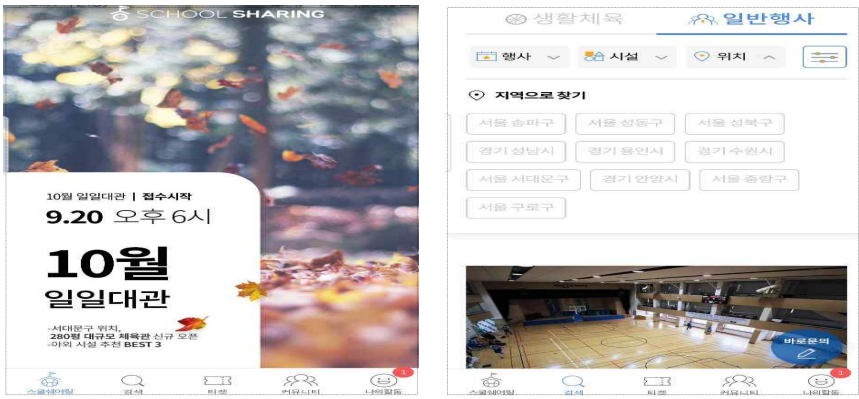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달리 학부모는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점에서 정규수업 이후 귀가시간까지 다양한 돌봄이 제공된다면 사교육비, 돌봄의 공백 등이 감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이용자와 공급자간에 의견차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간의 공유를 위한 초등학교 개방

초등학교의 돌봄 공간을 공유하는 부분과 관련 안전과 관리 등의 문제로 초등학교 등 공공건문에 대한 돌봄공간을 공유하는 문제는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가 대부분의 공적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스포츠 플랫폼서비스인 “스쿨쉐어링”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동호회 맞춤형 플랫폼인 “스쿨쉐어링”을 통해 안전한 개방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는 유휴공간 쉐어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고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공유에 대한 대구지역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Ⅲ-22] 스쿨쉐어링앱

4) 초등돌봄에 대한 컨트럴 타워와 사업통합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가장 큰 정책파트너는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습, 돌봄과 보호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상자의 중복, 서비스의 중복 등이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개개인별 돌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컨트럴타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간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서비스 대상에 대한 분절적인 정책이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정원의 80%를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낙인감이 오히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인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시의 8개 구·군간 초등돌봄의 수요와 환경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컨트럴타워 설치를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정보 연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기관 FGI

대구지역은 2018년말 기준 2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신고정원은 5,430명으로 센터 이용아동은 5,029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은 92.6%로 센터당 평균 이용아동은 25.4명이다.

센터별 특별관리 아동의 이용현황을 보면 장애아동 62명으로, 다문화가정아동 150명, 북한이탈주민가정 아동 5명 등 전체 이용아동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군별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표 Ⅲ-10>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FGI

구분	구·군	유형
A	수성구	초등돌봄
B	동구	초등돌봄
C	서구	초등돌봄
D	달서구	초등돌봄
E	달성군	초등돌봄
F	북구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의 FGI를 통해 몇 가지 공적돌봄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종합복지관으로 위상 조정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을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아동

복지법」 제52조제8항 아동복지시설과 관련 지역아동센터가 명시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등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관으로 위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2) 인력 대비 적정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은 관련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입소와 보호, 양육치료가 제공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보호·학습지도·문화체험·안전·급식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공하는 점에서 센터별 배치 인력 대비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견해이다.

3) 돌봄협의회 운영 방식 개선

현행 돌봄협의회는 4개 교육지원청별로 권역별로 구성하여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부서장, 구·군부서장, 구·군 학교장, 지역아동센터 대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표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수요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돌봄협의회는 궁극적으로 지역내 돌봄에 대한 서비스와 자원이 연계되기 해서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회 위원의 해당 기관 권한의 차이 등으로 실제 논의가 이루어고 있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별 돌봄협의회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4) 돌봄기관 운영 등 처우개선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기본운영비로 보고 9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의 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운영비는 10~19인 이하의 동지역은 법정종사자 2명을 기준으로 4,580천원, 읍면지역은 4,730천원으로 기준이 2019년 예산이 지원된다. 20~29인 이하는 동지역은 4,840천원, 읍면지역은 4,990천원이며, 30인 이상은 3명의 법정종사자와 6,700천원이 지원기준이다.

구・군부서장, 구・군 학교장, 지역아동센터 대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표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수요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4)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강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시설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동이 10인 미만일 경우 시설장 1인, 아동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아동이 30인 이상인 경우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명 추가시 1명 추가)을. 아동이 50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간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서비스 대상에 대한 분절적인 정책이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정원의 80%를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낙인감이 오히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인 초

등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시의 8개 구·군간 초등돌봄의 수요와 환경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컨트럴타워 설치를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정보 연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FGI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모를 대상으로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표 Ⅲ-11>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FGI

구분	초등자녀	업무유형
A	달성군	유아, 초등 2 학년
B	달서구	초등 1 학년
C	북구	초등 3 학년
D	서구	유아, 초등 1 학년
E	수성구	초등 4 학년
F	기타	초등 3 학년

1) 초등돌봄은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학부모는 가장 중요한 돌봄 영역을 학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제공되고, 학교안에서 아동이 안전한 돌봄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과후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개설되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로봇이나 창의과학교실 등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실정

이다. 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수에 따라 교실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스매치현상은 돌봄의 공백과 사교육비 지출 이어진다. 전문적으로 방과후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별 사전수요 예측 및 개설 교실 예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학년별 프로그램 공유

방과후초등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학년별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사전 학부모와 함께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녀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 의견등이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별 프로그램 시간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돌봄정보 제공 기관 필요

다양한 돌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정보제공기관 또는돌봄안내자가 필요하다. 보통 초등자녀를 둔 학무모는 다양한 돌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보 또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였다.

초등돌봄과 관련 학령기별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안내와 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초등자녀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배치 기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소결

방과후교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89.9%이며, 학습지에 대한 인지가 76.9%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녀돌봄에 대한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교실 이용을 58.6%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은 가장 많이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달성군에서 96.1%로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공적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30.4%가 믿고 안심할 수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영역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방과후교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영어, 미술, 로봇과학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자녀 돌봄과 관련 가장 많은 부분은 학부모가 자녀의 돌봄을 위해 과거와 달리 일을 그만둘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70.1%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돌봄을 위한 이직의향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돌봄공백 시간은 낮시간이 17.3%, 학원 또는 돌봄이후 부모귀가전까지 15.9%, 학교정규수업후 학원이동까지 남는 시간 15.3%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돌봄희망과 관련 학교내 초등돌봄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아이돌봄에 의한 돌봄은 8.5%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돌봄 관련 운영시간 확대가 41.3%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돌봄을 위한 정보 습득경로는 37%가 주변 학부모로 부터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58.6%가 유보적인 응답으로 나타남에 따라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청 관계자 FGI결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분절된 돌봄업무가 오히려 돌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분절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방과후 돌봄 자체를 민간과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간의 공유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컨트럴 타워와 사업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기관에 대한 FGI결과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위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초등돌봄기관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력 대비 적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돌봄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존 방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협의체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돌봄기관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의 의견은 설문조사 결과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학교의 돌봄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돌봄 코디네이터 등을 동한 돌봄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학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93
2. 대구지역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95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대구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와 돌봄 관계자에 대한 FGI를 수행하였다.

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온종일돌봄체계는 2000년대 전후 가족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자녀의 돌봄 공백이 확대되었다. 다양한 가구는 가구별 돌봄에 대한 욕구를 공공의 영역에서 책무성을 갖게 되면서 정책에 반영되었다.

복지 영역에서 돌봄을 전담하면서 초등돌봄은 초기 지역사회 공부방으로 부터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등 각 영역별로 분절되어 초등돌봄이 이루어졌다.

촘촘한 돌봄을 위하여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가 구축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온종일돌봄체계는 What, Why, Who, When, Where, How 등 6개가 키워드이다. 6개 원칙을 토대로 수요에 대한 부족한 공급을 수급계획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초등돌봄 공적영역 확대

초등돌봄과 관련 공적영역으로 우선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방과후교실’을 시작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일돌봄교실, 초등보육교실,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면서 제도가 조금씩 운영시간과 대상들을 달리하면서 확대되었다. 2015년부터 돌봄취약계층 대상 저학년은 돌봄중심의 교실을 3~6학년은 방과후 학교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중심의 초등돌봄은 1990년대 공부방에서 2004년 법제화가 되

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취약계층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저학년 이용을 시작한 아동이 고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학과 주말 등 대상자가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 할 수 있으며, 자원 연계 등 아동에 대한 One-stop돌봄체계로 볼 수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만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이 이용하는 돌봄체계로 해당 가정에 방문하는 형태이다. 앞서 살펴본 초등돌봄은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해당 기관에서 돌본다면 아이돌보미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 수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제공된다.

다. 공적영역 돌봄 확대 요구

공적영역의 돌봄확대 요구는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8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적영역의 경우 가장 높은 인지도는 학습지로 96.9%로 나타났다. 공적영역의 돌봄을 이용하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이 18.6%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돌봄에 대한 요구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운영되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의 개선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공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프로그램의 불만족, 시설열악, 정원 초과 등은 향후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교육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하루 이용하는 학원은 1.84개이며, 하루 평균 2.27시간. 한달 평균 학원비는 43.5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달

서구의 4학년과 6학년이 가장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 2.98개의 학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학원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성구는 56.1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돌봄정보 신규제공 프로그램 필요

자녀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주변 학부모로 부터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학부모의 돌봄 정보의 충분성에 있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또한 자녀 돌봄을 위한 돌봄코디네이터에 대하여 향후 이용할 있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남에 따라 돌봄정보제공과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운영이 필요하다.

2. 대구지역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가. 다양한 돌봄체계 모델구축

대구지역의 온종일초등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돌봄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돌봄에 대한 모델구축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의 필요성은 가족의 다양성과 함께 원하는 돌봄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이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경우 기본돌봄 모델의 구축을 통해 돌봄공간, 돌봄유형 등에 대한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선도모델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모델은 동지역 또는 농촌 등 소도시 유형 등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되는 모델의 경우 대구지역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 대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돌

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함께 돌보는 초등돌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시·구·군 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재 교육청 중심의 돌봄협의체는 지역별로 해당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자원연계, 돌봄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한 협의체 기능을 일부분 행정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경우 취약계층, 차상위 등 전반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파악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돌봄협의체 구성을 통한 동단위 돌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초등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트워크는 수요자-공급자-정책전달자-서비스제공자-수혜자간의 소통을 통해,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돌봄서비스 중간조직과 제공인력 확보

돌봄서비스 중간조직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또는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위한 조직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초등자녀를 위한 돌봄 관련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 반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대부분 주변 학부모를 중심으로 돌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조직과 제공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라.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현재 돌봄조직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돌봄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석, 백선희, 정영모, 김소영(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산학협력팀

서혜전, 김진숙, 최윤옥(2014). 방과후돌봄서비스 협력의 실태와 협력 모델 제안에 대한 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

이희현, 황준성, 임봉조, 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관계부처 합동, 한국교육개발원. 2019.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한국교육개발원

부 록

설문조사지 105

대구지역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방안 연구

□□ - □□ - □□□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지역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개발을 통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여성가족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초등자녀를 둔 대구지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내용은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응답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한 문항, 한 문항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빠짐없이 모든 항목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8.

대구여성가족재단

□ 본 조사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연 락 처: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053-219-9981 (Fax)053-219-9979

□ 응답자 공통사항

현 거주지역		구·군	응답자 연락처		
조사원	□확인 □미확인	조사원 성명		조사일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설문참여에 따른 답례품 지급 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항목 : 연락처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Ⅰ. 일반적 사항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명
본인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아동과의 관계	① 부 ② 모 ③ (외)할아버지 ④(외)할머니 ⑤ 기타보호자( )
맞벌이 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본인의 직업	① 직업없음 ② 단순노무직(노동, 청소, 경비 등) ③ 판매 및 서비스직 ④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⑤ 기능관련근로자(공장, 기술직) ⑥ 자영업(음식점, 미용실 등) ⑦ 전문직(교사, 의사 등) ⑧ 기타( )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미만 ② 100~200만원미만 ③ 200~300만원미만 ④ 300~400만원미만 ⑤ 400~500만원미만 ⑥ 500만원이상

■ Ⅱ. 자녀의 일반적 사항
(다자녀일 경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작성 해주십시오)

자녀의 학년	① 초등학교 1학년 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연령	만 ( )세
자녀의 성별	여( ) 남( )

■ Ⅲ. 자녀의 방과후 활동 현황

※ 귀하의 자녀가 방과후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구 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향후 계획	
		안다	모른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희망	이용계획 없음
공적 서비스	1)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①	②	①	②
	2) 방과후학교/교실	①	②	①	②	①	②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①	②	①	②
	4)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5) 다함께 돌봄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6) 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7) 공동육아나눔터	①	②	①	②	①	②
사적 서비스	9) 국·수 학습학원	①	②	①	②	①	②
	9) 예체능학원	①	②	①	②	①	②
	10) 어학학원	①	②	①	②	①	②
	11) 개인 및 그룹과외	①	②	①	②	①	②
	12) 학습지	①	②	①	②	①	②

※ 공적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시는 분만 응답해주십시오.

Ⅲ-1. 귀하의 자녀를 공적(돌봄)서비스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 2개를 선택해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①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② 자녀가 가기를 희망해서
③ 특기적성개발을 위하여
④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⑤ 사회성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⑥ 비용이 저렴해서
⑦ 식사 및 간식 해결
⑧ 사교육을 보낼 형편이 안되서
⑨ 학습 및 숙제지도
⑩ 기타( )

Ⅲ-2. 귀하께서 공적(돌봄)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성적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
③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한다
④ 아이가 원하는 곳이어야 한다
⑤ 기관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야간보호가 이루어져야한다
⑦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한다
⑧ 급식과 간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⑨ 기타(　　)

Ⅲ-3. 귀하께서 공적(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습지도　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③ 저렴한 비용　④ 아이들의 또래학습 프로그램 확대
⑤ 아동의 귀가지도　⑥ 야간 또는 일시 보호
⑦ 급식과 간식 제공　⑧ 기타(　　)

Ⅲ-4. 귀하께서 방과후교실(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십니까?(모두선택)

① 바이올린　② 오카리나　③ 플룻
④ 우쿠렐레　⑤ 드럼　⑥ 로봇과학
⑦ 드론　⑧ 서예　⑨ 미술
⑩ 공예　⑪ 영어　⑫ 중국어
⑬ 배드민턴　⑭ 축구　⑮ 풋살
⑯ 댄스　⑰ 연극/뮤지컬　⑱ 주산암산
⑲ 컴퓨터　⑳ 기타(　　)

※ **초등돌봄교실** : 초등학교내 마련된 교실에서 돌봄전담교사가 방과후부터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 (교육청)

※ **방과후학교/교실** : 특기적성 등 정규교육 과정 이외 수요자 중심의 3개월단위 방과후프로그램 (교육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3학년까지 청소년대상 전문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다함께 돌봄센터** : 저소득층 위주 돌봄을 넘어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에서 12세 아동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보건복지부)

※ **아이돌봄서비스**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여성가족부)

※ **공동육아나눔터** :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열린공동체 공간 (여성가족부)

Ⅲ-5. 귀하께서는 자녀를 공적(돌봄)서비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②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③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④ 시설이 열악해서
⑤ 정원 초과로 이용 탈락
⑥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⑦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⑧ 학원에 다니는 것이 더 나아서
⑨ 집에서 너무 멀어서
⑩ 기타(　　)

Ⅲ-6. 귀하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두선택)

① 국수과탐과학원　② 종합학원
③ 태권도/축구/발레 등 체육분야　④ 개인/그룹과외
⑤ 바이올린/피아노 등 음악분야　⑥ 미술/서예 미술 분야
⑦ 논술/독해/독서　⑧ 영어 등 외국어
⑨ 기타(　　)

Ⅲ-7. 귀하의 자녀는 사교육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이용 학원 (　　)개
하루 평균 참여시간 (　　)시간
일주일 이용학원 (　　)개
한달 학원비 총 (　　)만원

■ Ⅳ. 방과후 돌봄과 향후 희망 돌봄 유형

Ⅳ-1. 귀하께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을 2년 이내에 그만 둘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⑤ 그만둘 예정이다

Ⅳ-2. 귀하께서는 자녀는 현재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누가 주로 돌봐주고 있습니까?

① 엄마　② 아빠
③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④ 이웃
⑤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⑥ 기타(　　)

Ⅳ-3. 귀하께서는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순위		2 순위	

① 성적 및 실력 향상
②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③ 자녀가 원하는 학원이라서
④ 마땅히 데리고 갈곳이 없어서
⑤ 간식 등이 제공되어서
⑥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⑦ 기타( )

Ⅳ-4. 귀하의 자녀는 현재 추가 돌봄이 필요한 돌봄 공백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Ⅳ-5. 귀하께서는 자녀의 돌봄 공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① 부모 아침출근-자녀등교까지(등교전 준비)
② 학교정규수업 이후 학원 이동시 남는 시간
③ 학원과 학원사이 남는 시간
④ 학원 또는 돌봄 이후 부모 귀가 전까지
⑤ 부모가 야근으로 퇴근이 늦을 때
⑥ 방학기간 동안 낮시간
⑦ 주말 근무에 따른 낮시간
⑧ 긴급출장/회의 등 긴급상황시
⑨ 병원입원 또는 아픈 가족 간호일 때
⑩ 기타( )

Ⅳ-6. 귀하께서는 추가로 자녀돌봄이 생긴다면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구·군·읍·면·동에서 제공한 돌봄공간에서 어르신, 중장년 여성이 돌봄
② 시간제 돌봄시설에서 전담인력의 돌봄
③ 학교내 초등돌봄교실에서 전담인력이 돌봄
④ 어린이집을 활용한 저학년 중심의 돌봄서비스
⑤ 이웃주민이 돌봄 품앗이 방식으로 돌봄
⑥ 현행 아이돌보미서비스 돌봄시간 확대
⑦ 아동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
⑧ 마을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한 초등돌봄서비스
⑨ 기타( )

Ⅳ-7. 귀하는 향후 초등학생 자녀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예시) 초등돌봄교실 3시까지 운영, 지역아동센터 연계(간식포함)
또는 초등돌봄교실 3시까지운영 방과후연계
5시까지(간식포함) 등

Ⅳ-8. 귀하께서는 공적돌봄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확대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 제공되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숙제지도 ② 인성교육
③ 예체능프로그램 ④ 체험학습
⑤ 자유놀이 ⑥ 간식 및 급식
⑦ 문화활동 ⑧ 상담
⑨ 특기적성 ⑩ 창의과학
⑪ 건강 및 운동 ⑫ 기타( )

Ⅳ-9. 귀하께서는 자녀돌봄과 관련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구하고 계십니까?

① 학교·교사 ② 학원이나 돌봄기관 직접방문
③ 주변 학부모 ④ 친척·가족
⑤ 직장동료 ⑥ 기타 ( )

Ⅳ-10.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 돌봄 정보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Ⅳ-11. 귀하께서는 향후 자녀 돌봄 관련 공적서비스나 돌봄을 연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디네이터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다
② 가끔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 생각이 있다
③ 전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다

Ⅳ-12. 귀하께서는 앞으로 대구시가 초등돌봄을 위하여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과제 2019-05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9년 9월 27일 인쇄
2019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정 일 선
발행처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1층)
TEL. 053)219-9970 FAX. 053)219-9979
인쇄처 : 초록뱀디지털
TEL. 053)852-7842 FAX. 053)852-7843
ISBN : 978-89-97062-44-7 (93300)

<비매품>

이 보고서의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